

사랑하는교회(舊 큰민음교회)

이단시비 종결되다!

도서
출판 거룩한진주

목 차

서문	8
----	---

1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통합 교단 특별사면위에 제출한 3가지 문건!)	11
----------------------------	----

1. 특별사면(해벌) 신청 이유서	13
2. 답변서(통합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30
3. 통합에 제출한 신앙고백서	74

2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통합의 대국민 사면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 전문)	77
-----------------------------	----

1. 이번 일의 발단은 이단해지가 아니라 통합의 상습적인 거짓 음해입니다.	80
2. 최삼경도 “변승우 목사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2
3. 제가 직접 경험한 불의한 이단정죄의 실상을 폭로하겠습니다.	97
4. 진실에 기초하여 바른 결정을 내린 교단과 연합기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102
5. 한국교회의 이단정죄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107

3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통합 특별사면위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 모음!)

113

1.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

(2016년 9월 23일 크리스찬월드모니터)

115

2. 예정 통합의 특별사면과 교단 우월주의

(2016년 9월 20일 기독교연합신문)

118

3. 무조건 이단해제를 반대하는 자들,

과연 그리스도인들인가? (2016년 9월 21일 교회연합신문)

120

4. 사면 취소 이단 관련 단체들, 전면전 나서나?

(2016년 10월 12일 들소리신문)

121

5. 예정(통합) 총회의 사면취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2016년 10월 6일 크리스천뉴스투데이)

122

6. “하나님의 이름” vs “인간의 이름” - 변승우 목사, “예정 통합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

(2016년 10월 6일 크리스천월드)

123

7. 변승우 목사, 예정 통합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

(2016년 10월 8일 크리스천헤럴드)

124

8. 변승우 목사 “예정 통합의 특별사면은 대국민 사기극”

(2016년 10월 6일 교회연합신문)

127

9. 기장 홍성표 박사, 예장 통합은 반성해야 (2016년 10월 7일 뉴스타켓)	129
10. 사면선포 취소 당사자들 항의성 기자회견 (2016년 10월 7일 예장뉴스)	130
11. 한국교회 이단 논쟁에 대한 새로운 전망 (2016년 9월 30일 기독교신문)	131
12. 본디오 빌라도가 웃는다. 본디오 빌라도도 소명기회는 주었다! (2016년 10월 7일 뉴스타켓)	133
13. 통합 교단은 사죄할 줄도 모른다! (2016년 10월 12일 들소리신문)	134
14. 통합 측 교단의 사면 반복 바보짓! (2016년 9월 28일 기독교시민연대논평)	136
15. 통합 측 '갑질'에 교계적 대응 필요 (2016년 10월 12일 교회연합신문)	136
16. 이단의 울무를 쓴 목회자들의 한의 소리(?) (2016년 10월 10일 기독교한국신문)	139
17. 예장 통합의 100회기 총회가 저지른 잘못은 실로 심각하다. (2016년 10월 1일 크리스천언론인협회 2016년 號外 04호)	142

18. 하나님의 이름을 횡령! 그 위에 우뚝 선 교권!	
(2016년 10월 1일 크리스천언론인협회 2016년 號外 04호)	146
19. 변승우 목사 기자회견 (2016년 10월 7일 서울매일신문)	148
20. 백로가 희다 하여 공격하는 까마귀 떼, 한국기독교계	
(2016년 10월 7일 세계경제신문)	151
21. 변승우 목사, 예수장로교통합 ‘이단 사면 철회 규탄’	
기자회견 ‘대형 교단들의 갑질 비난’	
(2016년 10월 11일 여성종합뉴스)	157

4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예장 통합 교단 사면백서”에서 발췌한 내용!)	169
1. 서언 - 통합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	171
2. 추천사 - 통합 (전)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창영 목사	178
3. 이 책에 나오는 통합 총회의 주장과 당사자 소명	181
4. 이 책에 나오는 변승우 목사에 대한 교수들의 연구 보고	184

서문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이단시비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이단사냥꾼들과 교단들의 주장이 악의적인 거짓말임을 증명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통합 사면위를 마지막으로 나도 기대를 접고 미련을 버렸다.

그 대신 한국교회가 끝내려 하지 않는 이단시비를 내가 끝내려고 한다.

어떻게?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함으로 그리할 생각이다. 그래서 쓴 것이 본서다. 본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지긋지긋한 이단시비를 끝내는 책이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1부와 2부는 내가 썼다. 1부는 통합 특별사면위에 제출한 3가지 문건을 그대로 올렸다. 사실 파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부는 사면선포를 취소한 통합 총회가 있는 후, “통합의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 앞에서 폭로한 기자회견 전문을 실었다. 객관적인 증거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3부는 기자들이 썼다. 그동안 불의한 이단사냥꾼들 편에 서거나 아니면 이단옹호언론으로 몰릴까 봐 눈치만 보고 침묵하던 언론들이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내주었다. 통합의 광기가 지나쳤고, 기자회견 때 제시한 증거들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중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았다.¹

4부는 고맙게도 통합이 써주었다. 기자회견이 있는 뒤 통합의 사면위원장이 『장자교단, 길을 잃다 예장(통합)의 사면파동』이라는 책을 냈기 때문이다. 통합의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추천사까지 썼으니 금상첨화다. 그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왔다.

아직도 거짓 소문을 믿고 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본서를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딱 한 번만 읽어라! 그 후에 이단이라 하든 삼단이라 하든 마음대로 하라!

장담하지만, 본서를 읽으면 게임오버다! 속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고, 양심이 있다면 다시는 이단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1 3부에 올린 신문기사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굵은 글씨만 읽어도 됩니다.

1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통합 교단 특별사면위에 제출한 3가지 문건!)





면 저, 여러분이 이대위위원이 되어 소문이 아니라 제가 통합 특별사면위에 제출한 3가지 문건을 직접 읽고 판단해보십시오.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참고로 통합 이대위와 사면위는 저에 대한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²를 한 후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서의 질문들은 통합뿐 아니라 각 교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취합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없는 것은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면위에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사면(해벌) 신청 이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2 대면조사는 사면위에서 했는데 녹음과 녹취록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서면 답변한 것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변승우 목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귀 교단 소속 교회(울산노회 전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후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진학하여 정상적인 신학수업을 받고 동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귀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억울하게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교회와 단체를 위하여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귀 교단의 제94회 총회 때 억울하게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으로 규정되어 오늘까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영환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던 중, 마침 같은 방에 계셨던 이남순 목사님이 저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으신 후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추천할 테니 이번에 억울한 사람들을 해벌하고 있으니 특별사면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사면을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귀 교단은 우리 교회의 이단성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절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도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교단이 한 교회를 상대로 일절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영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단 정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귀 교단은 저에게 소환은 물론 서면이나 유선통화 등 그 어떤 통로로도 일절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실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랑하는교회 이단 정죄는 거짓과 조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후 15년간 20여 명 모이는 작은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단기간에 급성장하였고, 이를 시기하는 질이 나쁜 일부 목사들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어 퍼트렸습니다. 그런데 귀 교단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런 거짓말들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를 단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은 주로 구원론과 계시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구원론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하여

귀 교단 소속이었던 강순방 박사³는 저에 대해 발표한 「통합이대 위 보고서」를 보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임을 발견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음은 구원론에 관해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의약연구단 책임연구원/의학박사(現), 대한화학회(KCS) 종신회원(現), 통합 교단 소속 교회 안수집사(前)

통합이대위가 변승우 목사를 행위구원자라고 매도한 자료들을 분석해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p. 9.)

이 글이 모순인가?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지옥가지 말고’는 거짓 믿음을 일컫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른 말이다.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무지하게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변승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009년 5월 14일 설교 중)

오해하기 좋게 기술적으로 인용했다. 그러나 구약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한 설교다. 증거로 그 전후의 말을 그대로 받아썼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애기지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구약시

4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68-69.

대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거 무지하게 무식한 애깁니다. …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기술적으로 편집하여 율법주의 이단처럼 보이게 하다니… 이것이 한 교단의 이대위로서 할 일인가?⁵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모두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성경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변승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pp. 54-55.)

역시 기술적으로 야비하게 인용했다. 이것만 읽으면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악의적으로 생략한 중간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모두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말해야지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말하거나,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하거나,

5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75-76.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거나 이런 것은 모두 복음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잘못된 것인 양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눅 14:25-33). 지극히 성경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 마치 십자가를 신뢰하기만 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나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이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 받는 거듭남이 없이도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양 가르치고, 자신들만이 정통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승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p. 59.)

이것을 인용한 후 『통합이대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도 회개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며, 구원받은 사람도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 성령의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반대하고 행위와 공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원관은 성경적 구원관이나 우리 개척교회의 구원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본 교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구원론이다.

그러나 변 목사가 말한 선한 행위는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에베소서 2:10절에 기록된 거듭난 자에게 따르는 선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⁶

저는 저의 처녀작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서 제가 가진 구원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첫째, 구원의 공로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
둘째,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참된 것이라야 합니다. ...

저는 일부 사람들이 저의 설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처럼 믿음에 행함을 더해야 구원받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을 뿐입니다.⁷

한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저의 책 제목을 보고, 일부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지옥에 가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저의 의도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수정증보판)』 서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6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83-85.

7 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서울: 거룩한진주, 2009. pp. 287-289.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은 저의 처녀작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천들은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의 신자를 가리킵니다. 종교를 구분할 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단 순히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천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오해가 없으 시기를 바랍니다.”⁸

처음 제목만을 보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2) 계시론과 성경론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하여

귀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조사 연구할 당시 이대위 전문위원이었던 최삼경 목사는 ‘계시’의 의미를 협의적인 의미, 즉 정경기록을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여 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 마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에 무엇인가를 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음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정경을 위한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계시는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신학자들도 ‘계시’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됨을 인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번 포이트레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 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수정증보판)』 서울: 거룩한진주, 2014. pp. 287-289.

“많은 개혁, 보수 신학자들이 ‘계시’라는 말을 전문술어로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여 ‘특별계시는 곧 성경 말씀’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기 때문에 개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성경에는 ‘계시’ 또는 ‘계시하다’라는 말이 꼭 정확 무오한 ‘특별계시 곧 성경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롬 1:18),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마 11:25),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것(엡 1:17)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⁹

저명한 신학자인 D. A. 카슨도 조직신학자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계시’와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계시의 정의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경해석의 오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30에서 예언의 은사가 계시에 의존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정경의 완결성을 위협할 정도로 권위 있는 형태의 계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의 조직신학 용어를 성경 저자들의 용어와 혼동하는 것이다.”¹⁰

뿐만 아니라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를 거쳐 현재 피닉스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덤 박사도 그가 쓴 『조직신학』과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⁹ <http://blog.naver.com/cselee59/100190759707>

¹⁰ <http://blog.naver.com/cselee59/100190759707>

“여기에서(고전 14:30) 바울은 ‘게시’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에 대해 사용하는 기술적 방식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¹¹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게시하다’와 ‘게시’라는 용어는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또는 기록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말씀(마 11:27, 롬 1:18, 엡 1:17, 빌 3:15를 보라)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¹²

국내에서는 세계적 석학인 하워드 마샬 교수의 지도로 신약학박사를 취득한 총신대 이한수 교수도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개편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계시라고 해서 다 동일한 계시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성경적 계시’도 있지만 어떤 계시는 좀 더 사적이고 신자의 매일의 생활과 관련된 ‘조명적 계시’도 있다.”¹³

그러므로 최삼경 목사가 계시에 대한 그릇된 잣대로 우리 교회를 소위 ‘직통계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은 이단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1 웨인 그루덤 『조직신학(하)』 노진준 옮김. 서울: 은성, 1997. p.331.

12 웨인 그루덤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 김동수·김윤아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p. 377.

13 이한수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 솔로몬, 2012. p.305.

어이가 없는 사실은 최삼경 목사 자신이 이미 계시가 두 가지 즉 ‘정경기록을 위한 계시’와 ‘사적계시’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삼경 목사와 진용식 목사가 함께 저술한 『안식일 교회 대논쟁』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서나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외의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식교에서 선지자로 믿고 있는 화잇의 계시는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가 아니다. 안식교의 교리들은 성경의 계시처럼 화잇의 계시에 의하여 세워졌고 실질적으로는 성경 위의 계시로 작용하고 있다.” (최삼경 목사)¹⁴

최삼경 목사는 이처럼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 즉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계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의도적으로 직통계시 이단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저는 정경기록을 위한 계시는 이미 끝났지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사적인 계시는 오늘날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입신간증이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것을 보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이 성경과 동등

14 최삼경·진용식·김대성 공저 『안식일 교회 대논쟁』 서울: 한국교회문화사, 1997. p.100.

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지금은 더욱 성경말씀이 유일한 기준이요 성경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영성관련 책보다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의 책을 주로 읽으며 성경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이대위 보고서」에서 우리 교회가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거짓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방언이나 예언을 어떻게 훈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3)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거짓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론과 계시론에 대한 거짓 소문 이외에도 제가 제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거짓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한 음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순방 박사는 『읽는 자는 깨달을 찢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대위는 “변승우 목사가 자기 자신을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등 부흥을 이끈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pp. 103-111.)”고 주장했다.

“저는 찰스 피니의 고백을 읽으면서 감동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할 때의 저의 체험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p. 107.)

하지만 인용한 글 바로 밑에 “그는 한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로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 고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¹⁵

이상 살펴본 바대로 우리 교회 이단시비의 쟁점이 되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거짓된 소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교단의 결정에는 절차법상 위법이 있었습니다.

귀 교단 제94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결정을 내릴 당시, 총회이대위는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5명의 위원 중 고작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 자료들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총회이대위가 이런 불법적

15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찰리!』 서울: 기록한진주, 2012. pp.47-49.

인 결정을 한 사실은 이미 귀 교단의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의해 밝혀진 바입니다. 이 내용은 귀 교단 제94회기 총회에서 이단정죄를 받은 다른 분들과 언론들에 의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절차법을 위반하면 결의는 무효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무효로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귀 교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 한기총 조사 때 이미 통합의 이대위원들이 참여하여 “변승우 목사 이단 혐의 없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조사하기 위해 한기총 이대위에서는 통합을 비롯한 각 교단에서 파송한 이대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8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위 전체 모임에서는 16: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변승우 목사 이단성 없음”으로 통과되었고, 결국 한기총 임원회에서 “변승우 목사 이단 혐의 없음”이라는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한기총 제2011-203호).

물론 최삼경 목사의 사주를 받은 예장(백석) 측의 김학수 목사(지금 은 그의 거짓됨과 악함이 드러나 백석에서 제명되었음)가 자신이 수정하여 보고한 내용을 부정하고,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을 해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후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재조사 및 이대위 해체를 결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기총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행위의 결정은 명백한 불법이요 무효입니다.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실행위에서는 이대위 해체를 결의할 권한도, 이대위의 결의를 뒤집을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한기총 회장을 지내신 분에게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삼권분립이 지켜집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한 것을 국회나 대통령이 유죄라고 할 수 없듯이 이대위가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결정한 것을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한기총 회장이었던 귀 교단 소속 이광선 목사님이 이대위 전체 모임에 참석하셔서 실행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한기총 임원회에 보고하여 통과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국민일보에 성명서로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귀 교단에서 파송한 당시 이대위원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위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한기총 이대위에 참여했던 귀 교단 인사로는 김제 노회장이었고, 한기총 이단상담소장이었던 김향안 목사님, 심영식 장로님(이대위원), 이동연 목사님(전문위원), 그리고 현 통합 이단상담소장 이정환 목사님(전문위원)이 계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예성 교단(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이대위에 서도 저를 불러 직접 조사한 후에 ‘변승우 목사는 음해를 받은 것이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소문에 근거한 귀 교단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저의 책들을 서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고, 제 경우 마치 밧에 걸린 짐승처럼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단이라는 누명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대상에 서면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강대상을 붙잡고 설교한 것이 수백 번이며,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2년 이상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적게는 5시간 많게는 9시간까지 산을 짐승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목이 심히 불편하여 설교 중에도 목을 여러 번 뒤로 젖혀야 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단 교회에 다닌다고 이혼을 당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파혼을 당하고(할 수 없어서 불신 결혼까지 하는 실정이고), 기독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자녀들을 선교원에도 보낼 수 없고, 두들겨 맞는 성도들도 많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건축하려 해도 비정상적인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고, 어떤 은행들은 어이없게도 대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교회에 찾아와 회개유를 뿌리고 실제로 불을

지른 사람도 있었고, 이단이라고 칼로 찢러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번에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여러 해 동안 억울하게 음해를 받고, 수많은 고통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문에 때때로 저의 말이 과격하거나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성경에 입각해서 지적해주시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고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귀 교단 안에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에 근거하여 바로잡아주시면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압에 굴하여 정치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

2. 답변서(통합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답 변 서

특별사면위원장님 귀하

저는 변승우 목사입니다. 저에 대한 사면심사를 허락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신청인에 대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도 회개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예장 통합)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선택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예장 합신)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정통교회의 구원론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구원은 믿음 이외에 회개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셨

습니다.

마가복음 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셨고(눅 16:30), 회개가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47-48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수제자 베드로도 구원의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7-3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회개치 않은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벧후 3:8-9).

또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행 16:31)고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해야 할 것을 분명히 했고(행 17:30)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20: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회개와 믿음은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였습니다.

히브리서 6: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칼빈도 회개와 믿음의 순서를 바꾸어서 말했으나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기독교 강요 3권, 3장, 6) 그리고 회개를

중생과 연결시킴으로써 회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기독교강요 3권, 3장, 9).

더구나, 귀 교단 헌법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6장 구원 3.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믿음에 의한 것이나 믿음에는 회개가 따른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롬 5:16-17) 원수의 관계에서(엡 2:14-15, 고후 5:18-19) 화목의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회개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말할 때 회개를 강조하며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행위 구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롬 3:20). 따라서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뿐 아니라 행함도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래 이단이다.”
라는 주장을 하거나 혹은 타인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합니까?

답변: 제가 2006. 5. 26. 이 말을 하기는 했으나 당시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3번 이상 지적한 산데만주의라는 이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로마서 강해에서 적어도 3번 이단인 산데만주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위 ‘산데마니안주의’라는 이단이 18세기 교회를 괴롭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데마니안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모든 감정과 확신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단입니다.”¹⁶

“오늘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듣지는 못합니다. ... 그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것을 느끼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

16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 제1권』 서문 강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264.

도 문제가 아니다. 그가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 -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그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그 이단이 교회를 무섭게 황폐화시켰습니다.”¹⁷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성격에 관한 이 거짓된 개념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18세기에 매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르침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인데, 존 그래스(John Gras)라고 불리는 유능한 사람이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 로버트 산데만(Robert Sandeman)이라 불리는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잉글랜드에 와서 이 교훈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산데마니아니즘’(Sandemanianism)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제안한 자들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말씀에 큰 강조점을 둡니다.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거나 자신 속에 어떠한 변화도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 가르침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되어서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교훈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온건주의’(Moderatism)로 알려진 조건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래스의 추종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17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 제7권』 서문 강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178.

렇게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그의 교훈을 다소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전적으로 생명력을 잃게 되었으며 한동안 그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¹⁸

제가 주장했다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며, 그러므로 저의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앙고백을 하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이단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산데만주의가 이단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3.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의미입니까?

답변: 이것은 이단사설이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교(혹은 성결교)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귀 교단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리상의 차이를 충분히 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성결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나 성결교의 교리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운 교수님은 물

18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 제10권』 서문 강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 240.

론이고 장로교 신학자들인 이한수 교수님(합동), 양용의 교수님조차도 그분들의 책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의 책의 추천서를 써주신 적이 있는 귀 교단의 나점일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심지어 귀 교단의 김온유 목사는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쿰란출판사)라는 제목의 책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귀 교단에서는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고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신청인은 “성령의 직접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고 계시론에 이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하는 성령의 직접계시가 무엇입니까?

답변: ‘직접계시’니 ‘직통계시’니 하는 말은 직업적인 이단감별사들이 하는 말들이지 저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조사 연구할 때 이대위 전문위원이었던 최삼경 목사님은 ‘계시’의 의미를 협의적인 의미, 즉 정경기록을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마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에 무엇인가를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 역시 정경계시는 종결되었다고 믿고 있으

며,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계시(성령의 조명)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저의 입장은 정통 신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외의 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계시’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번 포이트레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개혁, 보수 신학자들이 ‘계시’라는 말을 전문술어로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여 ‘특별계시는 곧 성경 말씀’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개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성경에는 ‘계시’ 또는 ‘계시하다’라는 말이 꼭 정확 무오한 ‘특별계시 곧 성경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롬 1:18),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마 11:25),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것(엡 1:17)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¹⁹

또, 저명한 신학자 D. A. 카슨도 조직신학자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계시’와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계시의 정의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경해석의 오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30에서 예언의 은사가 계시에 의존한다고 가

19 <http://blog.naver.com/cselee59/100190759707>

정할 때 우리는 정경의 완결성을 위협할 정도로 권위 있는 형태의 계시
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의 조직신학 용
어를 성경 저자들의 용어와 혼동하는 것이다.”²⁰

그리고,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를 거쳐
현재 피닉스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신학
자 웨인 그루덴 박사도 그가 쓴 『조직신학(하)』과 『신약성경이 가르
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고전 14:30) 바울은 ‘계시’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성경과 같
은 권위를 가진 말씀에 대해 사용하는 기술적 방식보다는 더 넓은 의미
로 사용한다.²¹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시하다’와 ‘계시’라는 용어
는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또는 기록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말씀
(마 11:27, 롬 1:18, 엡 1:17, 빌 3:15를 보라)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으로
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²²

국내에서도 세계적 석학인 하워드 마샬 교수의 지도로 신약학박
사를 취득한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20 <http://blog.naver.com/cselee59/100190759707>

21 웨인 그루덴 『조직신학(하)』 노진준 옮김. 서울: 은성, 1997. p. 331.

22 웨인 그루덴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 김동수·김윤아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p. 377.

“개핀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계시라고 해서 다 동일한 계시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성경적 계시’도 있지만 어떤 계시는 좀 더 사적이고 신자의 매일의 생활과 관련된 ‘조명적 계시’도 있다.”²³

심지어, 개신대 나용화 총장님은 「계시·은사 중지론은 교회 죽이는 신학」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나 총장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적 은사들(신유, 방언, 축사 등)이 나타나게 하신다’며 ‘한국의 보수 정통 신학을 자랑하는 신학대학교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도 계시하고 계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8항; 대요리 43문답; 소요리 24문답)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계시 종결론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은사중지론 즉 성령의 계시적 은사(예언)와 방언의 은사 및 신유와 축사의 은사가 사도시대 이후로는 중지되었다고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계시종결론과 은사중지론을 가지고 이단시비를 하여 이단 아닌 이단을 만들어 정죄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비극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계시종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지직뿐 아니라 성령의 계시 행위를 부정함으로써 성령의 역동적인 계시 활동을 제한하

23 이한수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 솔로몬, 2012. p. 305.

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이는 것, ‘계시종결론과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계시의 수단들과 관련하여 꿈과 환상과 음성이 지금도 성도들에게서 체험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한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물론 치유사역과 축사사역도 부정하고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 같은 이단 정죄 행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죽이는 죄와 악을 범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이단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최삼경 목사님 자신이 이미 계시가 두 가지 즉 ‘정경기록을 위한 계시’와 ‘사적계시’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삼경 목사님과 진용식 목사님이 함께 저술한 『안식일 교회 대논쟁』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서나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외의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식교에서 선지자로 믿고 있는 화잇의 계시는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가 아니다. 안식교의 교리들은 성경의 계시처럼 화잇의 계시에 의하여 세워졌고 실질적으로는 성경 위의 계시로 작용하고 있다.” (최삼경 목사)²⁴

최삼경 목사님은 이처럼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 즉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계시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계시

24 최삼경·진용식·김대성 공저 『안식일 교회 대논쟁』 서울: 한국교회문화사, 1997. p.100.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의도적으로 직통계시 이단으로 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신청인의 직접계시 주장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신사도운동은 직접계시를 주장합니까?

답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사도운동을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3권이나 썼고, 그래서 신사도운동 진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교회는 신사도운동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계시에 대한 입장 역시 신사도운동의 영향이 아니라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은 성경의 영향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사용한 그런 성경구절들의 영향들 때문입니다. 물론 계시가 끝났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고린도전서 13장 8-10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13:8-10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지만 여기서 ‘온전한 것’은 로이드 존스가 잘 지적한 것처럼 정

경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이 모든 은사들은 폐해지지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5절을 근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2-5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 중 계시의 은사들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성경 기록을 위한 계시를 과거 세대에 주는 주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포함하여 성경 저자들만 이런 계시를 받았습시다(롬 16:26, 갈 1:12, 3:23, 벧전 1:12). 이런 계시는 오늘날도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에 이런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기록과 무관한 계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가 그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받은 계시는 성경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의 경험에 대해 일절 함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

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2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복음과 진리를 계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시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성경기록과 무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과 무관한 이런 계시는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반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전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 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30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처럼 바울뿐 아니라(6절)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계시를 받았습니다(26절, 30절).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는 성경 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 신앙생활과 은사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바울과 같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당시 성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계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해야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시대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행 2:1-4).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으나 신약시대에는 요엘의 예언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요 2:28-29).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존 스토틀은 성령님을 계시를 주시는 “**계시의 중개자**”²⁵라고 불렀고, 존 웨슬리는 신약성서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25 존 스토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박상훈 옮김.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p. 68.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서서’ - 약속의 성령은 믿는 자의 진보에 따라 지혜와 통찰도 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지혜와 계시를** 논하였다.”²⁶

그러므로 성경저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특별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성경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적인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신청인은 “자신이 받은 직접계시를 성경과 동일하거나 혹은 성경의 권위 위에 두며 자신이 사도들과 똑같은 영감을 받았으며 따라서 자신의 성경해석이나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귀하의 성경해석이나 설교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귀하는 사도들과 똑같은 영감을 받으며 귀하가 해석하는 성경해석이나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난 2009년 예장 합신의 박형택 목사님은 저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총서 6권 신약성서주해(하)』 마경일·송흥국 옮김. 서울 웨슬리사협회, 1983. p. 143.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자. 그는 한 여전도사가 변승우 목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았다는 계시를 기록하였다. 그는 이 말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계시 내용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계시의 수여자요 사도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내용이 분명하다.

“네 말이 옳다. 나는 이 시대의 많은 나의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 임했던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은 이 종 하나뿐이다. 나는 그에게 단순히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감을 주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가 다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것이다.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을 것이며, 내가 직접 하는 말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 은사를 어찌 다른 은사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변승우 목사는 1) 사도들과 똑같은 영감을 받았으며 2) 그의 성경 해석은 전혀 틀리지 않고 완전하며 3) 그의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자신을 계시의 수여자로 자신의 성경해석이 전혀 틀리지 않고 정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정말 위험한 수준의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박형택 목사님이 저의 책에서 인용한 대목의 바로 뒤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응답을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²⁷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에 저는 기독교 고전이나 영성운동 책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저의 무지를 통감하면서 배우기 위해 국내외신학자들의 책을 주로 탐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단정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다 또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쓰곤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매우 다양합니다. 전문적인 최고의 학자들도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자신의 해석이 완전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저 같은 일개 목회자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완벽하게 옳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알았던 것을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수시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제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

27 변승우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 22.

디로 말해서 저는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신청인은 은사목회자인 “케네스 해긴이 받았다는 계시를 성경과 동일한 계시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해긴이 받았다는 계시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까?

답변: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체험이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화로 인용했을 뿐 해긴 목사님이 받은 계시를 성경과 동일한 계시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순복음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는 네 가지의 등급 또는 서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서열이나 등급 안에서, 사도들은 서로 다른 분량의 기름부으심을 가지게 된다”²⁸고 말씀하셨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사도의 첫 번째 서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요 3:34). 두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어린양의 사도들입니다. 즉 맛디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입니다.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다른 토대적인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비토대적인 사도들입니다. 오늘날도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28 케네스 E. 해긴 『그리스도의 선물』 김진호 옮김. 용인: 믿음의 말씀사, 2008. p. 18.

믿고 있는 학자나 목사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바로 이런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에 대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 다른 토대적인 사도들

세 번째 서열의 사도는 바로 바울이 속해 있는 사도의 등급입니다. 이 서열에 들어 있는 사도들의 특징은 그들도 역시 신약성경의 교리적인 토대가 형성되는 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열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토대적인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복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더할 수도 뭔가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방문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매우 재미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에는 기초를 놓는 사도들도 없고, 기초를 놓는 선지자들도 없단다.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동일한 수준 또는 권위와 같은 서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열에 속해 있지 않다.’”²⁹

제가 이 간증을 소개한 이유는, 이처럼 케네스 해긴 목사님 자신이 그가 받은 계시들이 성경의 사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믿을 리가

29 케네스 E. 해긴 『그리스도의 선물』 김진호 옮김. 용안: 믿음의 말씀사. 2008. pp. 26-28.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긴 목사님은 그의 책에 여러 번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성경말씀으로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성경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받는 계시가 아니라 철저히 성경을 믿고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그분이나 그분의 책을 잘 모르고 한 질문 같습니다.

8. 신청인은 “지금도 계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성경계시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지금도 성경계시와 동일한 계시가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것은 4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계시의 완전성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계시와 동일한 계시가 존재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9.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큰믿음교회> 내에는 예언사역 팀, 방언통변 팀, 신유축사 팀 등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목회 신비주의 행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답변: 과거 한얼산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빨리 하게

해서 방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집회시간에 방언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잘못된 소문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한다는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가르쳐서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예언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제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워서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아직도 예언을 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거짓 소문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과거에 예언전도학교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가르친 내용은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교만, 무례함, 탐심,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맹신 등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교육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예언, 방언통변, 신유, 축사 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롬 12장, 고전 12-14장, 엡4장). 그러므로 그것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목회, 신비주의 사역'이 아닙니다.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흔히들 지적하는 것처럼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사를 버리라거나 은사사역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무질서하게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기는 했으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유익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4: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전서 14: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처럼 바울은 은사사역을 터부시하거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문맥에 의하여 절대로 뒤집히거나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 교단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교단 ‘헌법’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4장 성령

3.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한 은사로 나타난다. …

4. 성령의 특수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전 12:4-11).

이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봉사를 위해 주신 선물로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지키고, 남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모든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져야 한다.

5.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행 1:8)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다(막 16:15).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언제든지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시며(행 2:42-47),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케 하며,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지혜와 의욕과 용기를 갖게 하신다(요 14:26, 15:26-27, 행 1:8, 16:7).³⁰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귀 교단의 교리와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10. 개혁신교회는 사도적 교회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귀하는 한국기독교가 사도적 교회임을 인정하십니까? 혹자는 신청인이 “오늘날에도 주님이 사도를 세우시며 자신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 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답변: 예. 저는 한국교회가 사도적 교회임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저는 신사도운동은 반대하나 오늘날에도 주님이 사도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의 용례를 조사해보면, ‘제자’라는 용어가 12제자에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사도’라는 용어

³⁰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pp. 148-149.

또한 12사도에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7, 사도행전 14:4, 14, 빌립보서 2:25, 갈라디아서 1:19 등이 그 증거입니다. 그중 로마서 16장 7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구절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도들이라 부른다. 초대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은 원래의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도들’이라 불렸다.”³¹

또, 귀 교단에서 출판한 『로마서주석』에서 페터 슈톨마허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이전에 선교의 직무로 부름받았던 사도들의 무리들 가운데서(갈 1:17; 고전 15:7 참조) 그들은 높이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무

31 요한 칼빈 『칼빈주석: 사도행전』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p. 458.

리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³²

또, 권위 있는 신학자 더글라스 무도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 의해 존중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도들 사이에서 존중받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유니아(스)를 ‘사도’의 한 사람으로 부르기 때문에 앞 시대의 해석자들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임에 틀림없다고 논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여자가 그런 권위를 지닌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유니아(스)를 여자로 감정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이다. 바울이 여자 사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약이 여자들의 사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사상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³³

또, WBC주석에서 제임스 던(James D. G. Dunn)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도들 보기에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사도들 중에 두드러진’을 확실히 의미한다. “사도들”이라는 직접적인 묘사(고후 8:23과 빌 2:25과 대조하라)

32 페터 슈틀마허 『로마서주석』 장흥길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p. 412.

33 더글라스 J. 무 『NICNT 로마서』 손주철 옮김. 서울: 솔로몬, 2015. p. 1232.

와 이어지는 구절은 협력하여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고전 15:7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지명된 사도들의 대그룹(12사도보다 더 큰)에 속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우리는 기독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 중의 한 사람이 여성 그리고 아내였다는 것을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있다.”³⁴

또, 박윤선 박사님도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이 문구는, “그들이 사도들 중에 유명한 자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 번역에 의하면, 그들도 사도들이라는 뜻이 성립된다. 그들은 12사도 반열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사도급 인물들이겠다. 그들은 본래의 사도들처럼 많은 교회에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여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여러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 둘째 해석을 지지한다(Sanday, Ridderbos).”³⁵

그리고 귀 교단의 고 이상근 박사님 역시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εν τοις αποστολοις) ‘사도들 중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고’로서, 그 뜻이 ① 우리 성경처럼 사도들에게 유명해진 것인지(De Wette, Meyer, Gifford) ② (그 자신 사도로서) 사도들

34 제임스 던 『WBC 성경주석 로마서(하)』 김철·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pp. 616-617.

35 박윤선 『성경주석 로마서』 서울: 영음사, 1969. p. 405.

중에서 탁월한 자인지(Chrysostom, Alford, Bengel, Godet, S & H) 이론이 있으나, 후설이 압도적이다. 사도란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를 가리키나, 넓은 의미에서 그 범위는 더욱 넓었다.”³⁶

이처럼 12사도나 바울과는 격이 다른 더 폭넓은 사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12사도나 바울 같은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사도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도행전 1장 21-22절

사도행전 1:21-22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오늘날은 사도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중에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금은 사도가 없어 보입니다.

36 이상근 『로마서』 서울 : 기독교문사, 2003. p. 348.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도의 자격이 아니라 어린양 12사도의 자격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던 것처럼 어린양의 사도도 12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28-30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후 그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은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한 야고보의 사후에는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를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즉 그의 자리가 꺾석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양 12사도의 사명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명시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사도행전의 핵심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이전부터 예

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것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자들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것을 어린양 12사도의 필수적인 자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어린양의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그는 여전히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도의 자격이라면 바울도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양 12사도에게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도들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의 직무는 계속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2) 에베소서 4장 11-12절

에베소서 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사명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의 사도들이 교회의 토대를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정경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중에도 성경을 한 권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처럼 사도가 아닌데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에베소서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도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세기뿐 아니라 지금도 성도는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1세기뿐 아니라 지금도 성도는 봉사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세기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재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 일을 사도들(목사나 교사나 영적 지도자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3)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낸 발신자들입니다. 그들은 1장 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 ‘실루아노’는 실라입니다. 따라서 실라와 디모데도 사도입니다. 그래서 테이어(Thayer)의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사전』(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에 보면 사도의 용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다른 다양한 지위들(교사, 복음전도자, 선지자)과 같이 탁월하며, 또한 성령을 보다 풍성하게 수여받음으로써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받은 자들(고전 12:28; 엡 4:11). 더 넓은 의미에서 그 이름(사도)은 그밖의 다른 그리스도인 교사들에 양도된다. 바나바(행 14:14),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와 실루아노(살전 2:7).”

이처럼 디모데와 실루아노도 사도였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12사도 혹은 바울과 바나바에서 사도의 계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실라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모

데에게 “참 아들”(딤후 1:2)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바나바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들도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라와 디모데를 끝으로 사도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는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들이 그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AD 1세기 말-2세기 초의 작품인 『헤르마스 목자』입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 특히 도덕적 타락과 회개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작품성에 대해서는 일단락하고 그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 교회의 직분들이 네 가지로 언급되는데 사도들, 주교들, 교사들, 집사들(이 당시 집사 직분은 오늘날 일반적인 집사 직분과 다릅니다)입니다(Hermas Vision 3 5:1

Those square white stones which fitted exactly into each other, are **apostles**, **bishops**, **teachers**, and **deacons**, who have lived in godly purity, and have acted as bishops and teachers and deacons chastely and reverently to the elect of God.).

다른 하나는 『디다케』 문서입니다. 『디다케』라는 이 작품은 ‘12 사도의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은 AD 1세기 말에서 2세기 중엽 시리아 지방의 작자미상의 편집자에 의해 당시 교회들이 사용하던 교리문답과 규범을 묶어놓은 문서로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책 역시 당시 교회들 가운데 교사들, 사도들,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Didache 11:1 Whosoever, therefore, cometh and teacheth you all these things that have been said before, receive him. 11:2 But if the teacher himself turn and teach another doctrine to the destruction of this, hear him not; but if he teach so as to increase righteousness and the knowledge of the Lord, receive him as the Lord. 11:3 But concerning the **apostles** and **prophets**, according to the decree of the Gospel, thus do. 11:4 Let every **apostle** that cometh to you be received as the Lord. 11:5 But he shall not remain except one day; but if there be need, also the next; but if he remain three days, he is a false **prophet**. 11:6 And when the **apostle** goeth away, let him take nothing but bread until he lodgeth; but if he ask money, he is a false **prophet**.).

그러므로 사도직이 계속 내려왔으며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교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것은 ‘계시’와 마찬가지로 ‘사도’를 성경기록과 연관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성경 저자들과 같은 사도들이 오늘날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해긴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존재하는 사도들은 모두 성경 기록과 무관한 비토대적인 사도들뿐입니다.

만약 성경저자로서의 사도들과 동일한 종류의 사도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고 하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위협받을 수 있고 이 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도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기록이 아닌 다른 면에서 사도적인 기능을 하는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래함**,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유명한 성경교사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도 저와 같이 믿고 있고 귀 교단의 **예영수** 박사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영수 박사님이 여러 번 회장을 지낸 한국영성총연합회에 모이는 초교파적인 수백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단성이 아니라 단지 견해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설교 중 이 말을 공공연하게 자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목사님들이 저에게 사도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과 사역 은사』라는 책에 사도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도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들은 말씀의 선포자이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것입니다.

- 2) 뚜렷이 드러나는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3) 깊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 4) 교회를 세우는 권위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 5) 영적 리더십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³⁷

그런데 저는 이 중 첫째와 넷째와 다섯째 조건만 갖추었습니다(그것도 주의 은혜로). 둘째와 셋째 조건은 갖추지 못했습니다.”³⁸

성경에서 바울은 사도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1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후서 12:12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사도든 아니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자이기에 그저 참 신자와 참된 목사가 되길 원할 뿐입니다.

37 케네스 E. 해긴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과 사역 은사』 정승혜 옮김. 서울: 베다니, 2012. p. 83.

38 변승우 『하나님의 선물』 서울: 거룩한 진주, 2015. pp. 83-84.

11. 신청인은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전인구원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전인구원을 부정합니까?

답변: 제 말은 영혼육의 구원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부분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the order of salvation) 즉 구원의 순서에 대해 설명한 것뿐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단번에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회개로 즉각 결정되기는 하나 그 궁극적 실현에는 긴 과정을 요하는 구원 과정의 순서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과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지요.

빌립보서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

희 구원을 이루라.[현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디모데후서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미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성경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책들은 구원론을 다룰 때 칭의나 중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 다룹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운 교수님은 “전통적인 신학은 이 문제를 칭의론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구원의 서정’의 틀 속에서 칭의(justification) 뒤에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을 설정하여 해결하려 했습니다. ‘칭의’된 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glorification;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참조. 롬 14:10; 고후 5:10)과 연계하여 ‘성화’의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번 칭의된 것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로운 생활을 하려 노력할 것입니다”³⁹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김세운 교수님은 ‘구원의 서정’을 “전통적인 신학”이라고

39 김세운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4. pp. 80-81.

했습니다.⁴⁰

실제로 구원의 서정은 전통적인 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이것을 설명한 것일 뿐 특이하거나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12. 신청인의 설교나 책에는 기성 교회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성 교회를 공격함으로 귀하나 귀하의 교회만이 참된 주의 종이요 참된 교회라는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김동수 교수님의 책에서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다’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교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은 후에도 계속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들을 도와왔습니다. 지금도 교파를 초월하여 어려운 많은 교회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특별히 5,000만원이나 1억 이상 도와드린 타 교단 교회만도 수십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편,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처럼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40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4. p. 81.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마 23장), 존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자 역시 저보다 훨씬 거친 말로 교계와 타락한 목회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단지 비판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날 교계의 상태도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사면위원장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교계의 타락한 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영성운동의 경우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고 하셨는데 참가비를 받고,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고, 강사 장사 자리 장사를 하고, 예언이나 안수기도를 빌미로 헌금을 뽑아내고 돈 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단시비를 겪으면서 만난 교계의 목사님들 중 거의 80% 이상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아무나 빼서 쓰면 되는 공돈처럼 생각했습니다.

또한, 직업적인 이단감별사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끊임없이 사실과 무관한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어 퍼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문선명처럼 대관식을 했다”,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했다”, “예언을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다”, “불신자도 구원받는다고 했다…”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단과 기독교언론이 거짓말에 속아 불의한 결정을 내리거나 보도하고, 심지어 진실을 알면서도 공의를 저버리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불의한 결정을 내리고 거짓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비판한 것은 주로 이런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판하는 것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음해를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 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혼당하고 파혼당하고 퇴학당하고 직장을 잃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지나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처럼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비판하는 말이 듣기 싫다고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도 있어 웬만하면 일체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설교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자제하고 조심하겠습니다.

13. 공 교단에서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귀하의 신앙과 큰믿음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 교회의 지적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여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한편, 문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교회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까?

답변: 물론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더욱 원하는 일입니다. 나이드 자꾸 들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주

님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된 부분이 있다면 요구하시는 대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14. 신청인과 신청인의 견해를 따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교단의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의 신학적 지도를 수용하고 일정한 교육을 시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 이단감별사들은 “이단은 거짓말을 잘한다.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진짜 이단이라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은 오히려 그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님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생각할 때 목회자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물론이요, 함께 사역하는 저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꺼이 참여하여 열심히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성은 아니라도 저희 교회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칠 것입니다.

3. 통합에 제출한 신앙고백서

나의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벧전 1:2, 벧전 1:18-19)으로서 신앙양심을 가지고(행 23:1) 제가 실제로 믿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신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사도신경을 100%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곧 저의 신앙고백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이심을 믿습니다(마 28:19, 고후 13:13).

저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유일신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이심을 믿습니다(창 1:1, 히 3:4).

저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마 16:16). 예수님의 성육신과 가르침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요 3:5) 거룩하게 하시고(벧전 1:2),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16:13), 은사를 주시고(고전 12:7), 열매 맺게 하시는(갈 5:22-23)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믿습니다(참고로, 저는 피터 와그너 박사 주장에는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신사도운동을 반대합니다).

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음

을 믿습니다(엡 2:8, 벵전 1:18-19).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다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롬 3:20). 동시에 저는 로이드 존스가 지적한 산데마니안주의(신앙주의)도 반대합니다. 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존 스토틀가 잘 지적한 대로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 들이는 것(행 2:36, 5:31, 16:31)이므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고 믿습니다(롬 1:5, 마 7:21, 약 2:14-26).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조금도 가감할 수 없으며, 신앙생활과 사역에 안전하고 유일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딤후 3:15-17). 또한, 성경은 완결되었으며 성경의 저자인 사도들과 같은 권위가 있는 계시를 받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체험하는 영적 체험은 속기 쉽고, 불완전한 것이며, 따라서 성경으로 분별하여 오직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함을 믿습니다(고전 14:29, 살전 5:21)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

2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통합의 대국민 사면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 전문)





저는 거짓으로 이단으로 음해되어 뒤통수에 걸린 짐승처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지난 8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세 암흑시대 같으면 분명히 통합 목사들이 저와 자녀와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한이 없어 그렇게 못할 뿐 그들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단사냥꾼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단사냥꾼은 지능적인 거짓말로 영적 살인을 한다”⁴¹고 했습니다. 『이단 정죄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책에도 “이단사냥꾼은 인격 살해를 서슴없이 저지른다”⁴²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살인과 인격적인 살해를 서슴지 않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단사냥꾼들은 물론 그들과 한통속인 정치목사들과 교수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살인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방조도 죄입니다. 따라서 그 외 교수들, 목사들, 언론들, 심지어 이 나라

41 예영수 『이단사냥꾼의 속성』 서울: 엠복스, 2010. p. 70.

42 예영수 『이단 정죄와 역사의 아이러니』 서울: 국제크리스천학술원, 2007. p. 119.

의 사법부마저도 살인방조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해하고 죽여도 그저 방관만 하고 있고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통합의 사면선포와 취소 그리고 폐기가 핫이슈입니다. 채영남 총회장은 한교연 소속 교단들과 기독교언론 특히 증경총회장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고, 총대들은 통합이 거짓으로 죽인 우리 교회를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면을 반대한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진실에 눈을 감았고, 너무도 사악합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일의 발단은 이단해지가 아니라 통합의 상습적인 거짓 음해입니다.

이번 일의 본질은 이단사면이나 해지가 아닙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건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통합에 제출한 사면신청서에서 밝힌 대로, 통합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고 시작입니다. 그 증거로 사면위원회에 제출한 사면신청이유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특별사면을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귀 교단은 우리 교회의 이단성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절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도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교단이 한 교회를 상대로 일절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영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단 단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귀 교단은 저에게 소환은 물론 서면이나 유선 통화 등 그 어떤 통로로도 일절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 사랑하는교회 이단 정죄는 거짓과 조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은 주로 구원론과 계시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구원론에 대한 거짓 소문

귀 교단 소속이었던 강순방 박사⁴³는 저에 대해 발표한 「통합이대 위 보고서」를 보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임을 발견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음은 구원론에 관해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4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의약연구단 책임연구원/의학박사(現), 대한화학회(KCS) 종신회원(現), 통합교단소속 교회 안수집사(前)

통합이대위가 변승우 목사를 행위구원자라고 매도한 자료들을 분석해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게 되 시기를 바랍니다.” (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p. 9.)

이 글이 무슨인가?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지옥가지 말고’는 거짓 믿음을 일컫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른 말이다.⁴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무지하게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변승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009. 5월 14일 설교 중)

오해하기 좋게 기술적으로 인용했다. 그러나 구약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설명한 설교다. 증거로 그 전후의 말을 그대로 받아썼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애기지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구약시

44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68-69.

대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거 무지하게 무식한 애깁니다. …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기술적으로 편집하여 율법주의 이단처럼 보이게 하다니… 이것이 한 교단의 이대위가 할 일인가?⁴⁵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모두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성경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변승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pp. 54-55.)

역시 기술적으로 야비하게 인용했다. 이것만 읽으면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악의적으로 생략한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모두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말해야지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말하거나,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하거나,

45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75-76.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거나 이런 것은 모두 복음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잘못된 것인 양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눅 14:25-33).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다.⁴⁶

“... 마치 십자가를 신뢰하기만 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나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이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 받는 거듭남이 없이도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양 가르치고, 자신들만이 정통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승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p. 59.)

이것을 인용한 후 『통합이대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도 회개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며, 구원받은 사람도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 성령의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반대하고 행위와 공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원관은 성경적 구원관이나 우리 개척교회의 구원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본 교단은 절대로

46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81-83.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구원론이다.

그러나 번 목사가 말한 선한 행위는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에베소서 2:10에 기록된 거듭난 자에게 따르는 선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⁴⁷

2) 계시론과 성경론에 대한 거짓 소문

귀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조사 연구할 당시 이대위 전문위원이었던 최삼경 목사는 ‘계시’의 의미를 협의적인 의미, 즉 정경 기록을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여 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 마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에 무엇인가를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음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정경을 위한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계시는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신학자들도 ‘계시’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됨을 인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번 포이트레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개혁, 보수 신학자들이 ‘계시’라는 말을 전문술어로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여 ‘특별계시는 곧 성경 말씀’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개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성경에는 ‘계시’ 또는 ‘계시하다’라는 말이 꼭 정확무오한 ‘특별계시 곧 성경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

47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83-85.

나눔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롬 1:18),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마 11:25),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것(엡 1:17)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⁴⁸

저명한 신학자인 D. A. 카슨도 조직신학자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계시’와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계시의 정의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경해석의 오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30에서 예언의 은사가 계시(에) 의존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정경의 완결성을 위협할 정도로 권위 있는 형태의 계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의 조직신학 용어를 성경 저자들의 용어와 혼동하는 것이다.”⁴⁹

뿐만 아니라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거쳐 현재 피닉스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 박사도 그가 쓴 『조직신학(하)』과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고전 14:30) 바울은 ‘계시’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에 대해 사용하는 기술적 방식보다는 더 넓은 의미

48 <http://blog.naver.com/cselee59/100190759707>

49 <http://blog.naver.com/cselee59/100190759707>

로 사용한다.⁵⁰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게시하다’와 ‘게시’라는 용어는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또는 기록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말씀(마 11:27, 롬 1:18, 엡 1:17, 빌 3:15를 보라)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⁵¹”

국내에서는 세계적 석학인 하워드 마샬 교수의 지도로 신약학박사를 취득한 총신대 이한수 교수도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개핀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계시라고 해서 다 동일한 계시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성경적 계시’도 있지만 어떤 계시는 좀 더 사적이고 신자의 매일의 생활과 관련된 ‘조명적 계시’도 있다.”⁵²

그러므로 최삼경 목사가 계시에 대한 그릇된 잣대로 저를 소위 ‘직통계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은 무지한 것일 뿐 아니라 매우 악의적인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최삼경 목사 자신이 계시가 두 가지 즉 ‘정경 기록을 위한 계시’와 ‘사적계시’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삼경과 진용식이 함께 저술한 『안식일 교회 대논쟁』이

50 웨인 그루덤 『조직신학(하)』 노진준 옮김. 서울: 은성, 1997. p. 331.

51 웨인 그루덤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 김동수·김윤아 옮김. 서울: 솔로몬, 2013. p. 377.

52 이한수 『교회의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 솔로몬, 2012. p. 305.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서나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외의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식교에서 선지자로 믿고 있는 화잇의 계시는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가 아니다. 안식교의 교리들은 성경의 계시처럼 화잇의 계시에 의하여 세워졌고 실질적으로는 성경 위의 계시로 작용하고 있다.”⁵³

최삼경 목사는 이처럼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 즉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계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의도적으로 직통계시 이단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

한편, 「통합이대위 보고서」에서 우리 교회가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역시 거짓 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방언이나 예언을 어떻게 훈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했을 뿐입니다.

3)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거짓 소문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한 음해입니다. 이에 대해 강순방 박사는

53 최삼경·진용식·김대성 공저 『안식일 교회 대논쟁』 서울: 한국교회문화사, 1997. p. 100.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합이대위는 “변승우 목사가 자기 자신을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등 부흥을 이끈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pp. 103-111.)”고 주장했다.

“저는 찰스 피니의 고백을 읽으면서 감동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할 때의 저의 체험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변승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p. 107.)

하지만 인용한 글 바로 밑에 “그는 한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로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 고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⁵⁴

이상 살펴본 바대로 우리 교회 이단 시비의 쟁점이 되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거짓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교단의 결정에는 절차법상 위법이 있었습니다.

54 강순방 『읽는 자는 깨달을 찌저!』 서울: 거룩한진주, 2012. pp. 47-49.

귀 교단 94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결정을 내릴 당시, 총회 이대위는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5명의 위원 중 고작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 자료들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총회 이대위가 이런 불법적인 결정을 한 사실은 이미 귀 교단의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귀 교단 94회 총회에서 이단정죄를 받은 다른 분들과 언론들에 의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절차법을 위반하면 결의는 무효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무효로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귀 교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감히 사면을 신청하면서 이것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전부 사실이기에 때문에 통합 사면위는 물론 이대위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의 이런 행태는 이미 여러 언론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장 통합은 에큐메니칼을 교단 정체성으로 내세운다. 에큐메니칼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교단들은 이단규정을 잘 하지 않는다. 기장이나 감리교에 이대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통합은 교단 정체성과 달리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단규정을 해왔다.” (2016. 9. 20. 기독교연합신문)

“사실 통합 측이 지난 20~30여 년간 에큐메니칼 교단 정신과는 달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을 양산시켰다. 여기에는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정죄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대교단 통합 측의 책임이 크다.” (2016. 9. 21. 교회연합신문)

이번에 통합의 채영남 총회장도 사면 선포를 하면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통일교를 비롯하여 신천지, 엘리야복음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여호와의증인, 구원파 등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성경과 기독교를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근거한 형제들까지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하고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에 양심이 있다면 저와 우리 교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단 결정 무효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로 형제를 매도한 당시의 이대위 위원들과 그들과 결탁한 교수들을 징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통합은 덩치만 믿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더러운 갑질입니까? 그래서 통합과 한통속인 백석의 신문마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이단 연루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시도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정말 이단 굴레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돕고자 했다면, 무분별한 이단규정 행태부터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순서가 맞다.” (2016. 9. 20. 기독교연합신문)

통합은 의도는 좋았으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를 받아야 할 이단사냥꾼들이 도리어 반격을 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총대,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이단을 해지하려 한다며 그 난리를 피우고, 총회에서 사면결정을 폐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사면위 초기에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통합의 모든 목사들에게 “사면신청이유서”와 『대질심문』이라는 책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총대들은 능히 제가 거짓에 의해 이단으로 매도되었고 타 교단들의 결정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천인공노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들이 정말로 목사들인지, 아니 목사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 맞는지 진정으로 의심스럽습니다.

2. 최삼경도 “변승우 목사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사면위에서 저를 사면하려고 하자 최삼경이 가만 있지 않았 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만행이 다 드러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뉴스 타겟(2016. 09. 24.)이 이것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최삼경은 왜, 특별사면선포를 강력하게 반대했나? … 그것은 바로 이 번의 특별사면선포가 최삼경의 거짓말과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이단을 조작했던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허겁지겁 최삼경은 사면대상 4교회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글 을 「교회와 신앙」에 올렸습니다. 거기서 3가지로 저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글은 제게 이단성이 없다고 공포하는 것과 다른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변승우는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역시 본 교 단에게 맹공을 부었다. 그는 정통교회를 ‘짜통 기독교’라고 공격하니 그 것이 그의 진실에 맞는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다. 왜 그럴까? 역시 그것이 궁금하다.”

제가 『정통의 탈을 쓴 짜통 기독교』라는 책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통교회 즉 한국교회 전체를 짜통이라고 한 것이 아 닌습니다. 책의 목차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1. 맘몬교
2. 구원파(신앙주의)
3. 성경교(종교화된 기독교)
4. 적그리스도교(종교다원주의)
5. 사탄의 회(이단사냥꾼들의 정체)

이처럼 이 책은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라 교회 안의 잘못된 다섯 그룹을 짚통 기독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삼경은 제가 마치 한국의 정통교회 전체를 짚통 기독교라고 한 것처럼 썼습니다. 책을 읽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최삼경과 달리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본 분이 있습니다. 통합 교단의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책을 읽은 후 저에게 전화하여 책의 내용에 동의하시며 젊은 목사가 이런 좋은 책을 쓰다니 자랑스럽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거짓 말로 이단을 제조하는 최삼경과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최삼경은 저에 대해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다. 왜 그럴까? 역시 그것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영혼들 때문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순한 양처럼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둘째, 한국교회가 “이단”이란 말을 쉽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

히 우리 교단은 그렇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류광수 씨를 “이단”이라고 하였지만 본 교단은 “사이비성”이 있다고 악하게 규정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최초로 가장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 류광수 씨다. 무려 9개 교단이 그를 규정했다. 그런데 변승우는 5개 교단이나 그를 규정했다. 그중에 3개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했다. 본 교단과 합신 측과 그가 속했던 백석 측에서 그랬고, 그리고 그가 속한 백석 측에서는 그를 면직 출교시켰다.”

이것은 명백히 순환논리입니다. 통합이 저를 실제로 조사하고 이단성을 찾지 못한 것이 알려지자 이단성은 하나도 대지 못하고 궁색한 순환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단사냥꾼 4인방을 아실 것입니다. 통합: 최삼경, 합동: 진용식, 고산: 최병규, 합신: 박형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두머리는 최삼경인데, 통합 안에서 거짓말과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이단 정죄에 앞장서왔습니다. 또 최삼경은 이단으로 정죄한 교회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패거리를 통해 다른 교단들도 도미노처럼 정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된 사실이며 통합 인사들이 저에게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교단들이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이단해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통합 목사들은 타 교단과의 화합을 위해 이단해지가 불가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고한 형제의 피에 취하지 않고는 이를 수 없는 화합이라면 그런 화합은 개나 쥐버려라!”

통합이 말하는 화합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화합을 추구하니 용공세력, 동성에 옹호, 성경의 권위 부인, 심지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WCC 부산총회를 개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통합 교단의 이단성을 조사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셋째, 본인(최삼경)은 그때까지 변승우를 연구한 일이 없고 글 한 줄 쓴 일도 없고 비판한 일도 없다. 그런데 일간지들에 광고까지 내어 본인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일도 없이 다른 옹호자들을 통하여 이단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회개도 진정한 회개로 봐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삼경의 적반하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뻔뻔하게 제가 자신에게 사과해야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통합 제94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저를 이단으로 매도할 때 최삼경은 이대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단사냥꾼들의 대부이고, 모든 것이 그의 의지대로 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이단으로 매도하는 글을 쓴 곳도 최삼경의 「교회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할 때도 최삼경은 그것을 뒤집기 위해 4인방과 회합을 갖고 동분서

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것처럼, 최삼경은 저의 사면을 반대하면서 이단 사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삼경은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만행을 숨기기 위해 계속 이단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통합의 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와 만나기 전 최삼경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변승우牧사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실토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의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호해야 하므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경우 동석했던 통합 목사들 중에 증언해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제가 직접 경험한 불의한 이단정죄의 실상을 폭로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 말했습니다만, 통합뿐만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타 교단의 결정들도 거짓과 왜곡에 근거한 것이며 무효입니다. 이것은 『대질심문』 책을 읽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석

과거 백석은 1년간 저를 조사하여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아무 이유도 없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재조사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무튼 교수들이 저의 책과 설교 CD를 모두 가져가서 조사한 후 “**성경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총회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당시 총회장님과 총무가 불러서 알려주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 제가 이대위 최종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실을 말했고 그들 모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때 녹취한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녹취 내용

총회장: 목요일에 (변 목사를 이대위에서)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단성이 없다고 하더라. 이단성이 전혀 없다고 하니 이단이 아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이나 지도하는 것이나 그것을 따른다고 그래라.

제가 총회장님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승우: 총회장님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데 교리적인 차이라고 하면 제 양심 문제 때문에 못 합니다. 저는 양심대로 살

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그랬는데 양심상 저는 그것을 못 합니다.

총회장: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해라(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 대한 말임). 그리고 안 고치면 될 것 아니냐. 이단사설도 아닌데 목회자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해석들이 같은 교단 안에서도 다른데.

변승우: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총회장: 노력하겠다 그래라. 그리고 그냥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변승우: 총회장님, 저희는 이단사냥꾼들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고 하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총회장: 도대체 구체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 이단사설이 아닌데 교리적인 차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변승우: 저는 존 웨슬리가 가르친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회장: 그건 이단사설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변승우: 총회장님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대로만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이 성경대로만 설교하고 성경대로만 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 양심상 교리대로 설교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 못 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그 얘기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단사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제가 그 통화까지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석은 총회 때 재판도 없이 저를 ‘제명출교’시켰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지요. 후문으로는 성도 한 명 옮긴 것에 앙심을 품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어달라고 이대위에 청탁했던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석의 결정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2) 합동

합동은 저를 ‘신율법주의’로 매도했습니다. 특히 이단사냥꾼들과 한통속인 것이 드러난 권성수 교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하여 신율법주의 이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인가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틀는 물론 우리나라의 김세윤, 양용의, 권연경, 김경규 교수님 등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저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터무니없는 음해입니다.

3) 고신

고신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밥 존스의 간증을 소개하며 “기독교인 중에서 2%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 존스의 간증은 기독교인의 2%가 아니라 전 인류의 2% 정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신이 저를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여 이단으로 만들려고 ‘인류의 2%’를 ‘기독교인의 2%’로 바꾼 것입니다. 또, 제가 “환상을 못 보고, 예언을 못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다는데, 저 자신이 환상을 못 보고 예언도 못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신에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수차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근거로 불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합신

합신은 제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과 신사도운동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는 합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신사도운동이 이단이라면 왜 WLI와 HIM의 대표자이며 드러내놓고 신사도운동을 하고 있는 홍정식 목사는 내 버려둡니까? 형인 합신의 홍정길 목사님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유전무죄요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신사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3권 이상 썼고, 체안과 홍정식 목사로부터 집요한 반대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합신 이단사냥꾼 박형택은 저를 공격하면서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성경에 무지한 자입니다. 또 조직신학에서 상식에 속하는 ‘칭의, 성화, 영화’ 즉 ‘구원의 서정’을 이단사설로 몰아붙이는 무지한 자입니다. 과연 이런 자의 판단을 믿을 수가 있

겠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기사를 보니 박형택이 새로 이단으로 만들려고 올린 6명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한 총대가 이대위 청원에 대해 “세상 법에서도 이리지 않는다!”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덩치 큰 통합에는 이런 총대가 없는 것일까요?

이상 교단들의 불의한 결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소속했던 백석을 제외하고 다른 교단들은 저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한 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통합처럼 정죄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도 아니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4. 진실에 기초하여 바른 결정을 내린 교단과 연합기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교단이 통합과 일부 교단들처럼 불의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1) 기성의 결정

비록 후에 장로교단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말을 바꾸기는 했으나 기성은 자체 조사 후 ‘우리 교회에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다시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교단 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변승우 목사, 이단성 없는 것으로 결론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명식 목사)는 지난 3월 4일, 회의를 갖고 …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에 대한 건은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황덕형 교수(서울신대)가 연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변 목사의 설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지옥 가는 것을 너무 경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 이단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비 논의를 종결하고 다시 다루지 않기로 결의했다.” (2010. 3. 15. 기독교성결신문)

2) 한기총의 결정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었던 한기총도 우리 교회에 대해 8개월 동안 자세히 조사한 후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민일보는 이것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 장재형(예장 합동복음 전 총회장, 변승우(큰믿음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한기총 회장 길자연 목사님은 제게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다 음과 같은 공문을 떼어주어 공식 확인해주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110-74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1501호 ☎(02)741-2782~5 Fax: (02)741-2786 http://www.cck.or.kr cck@cck.or.kr

한기총 제 2011 - 203호

2011. 10. 13.

수 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부흥)

제 목 : 변승우 목사에 대한 연구결과 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귀 교단 “공문번호 2011-10-07-02 / 2011. 11. 06”로 제출한 “변승우 목사에 대한 연구결과 회신의 건”과 관련입니다.

2. 본 연합회 이단사이비 대책 위원회의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이대위 제21-6차 전체회의 (2010.11.08)에서 결의되었고, 한기총 제21-11차 임원회(2010.12.17)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변승우 목사 조사연구결과
신학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다른 교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나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 표 회 장 길 자 연 목사



이 결정은 한기총의 규정에 따라 이대위 소위원회와 대위원회 그리고 임원회를 통과하여 내려진 합법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기총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이대위원장과 서기와 이대위원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종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실행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기자가 제보해주어서 증경 한기총 회장 이용규 목사님에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 불가능한 일이다. 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종결된 일이고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확고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위에서 번복한 후에도 당시 한기총 회장 이광선 목사님이 임원회의 결의가 유효하다는 성명서를 국민일보에 냈습니다. 그러므로 한기총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3) 예성의 결정

2013년, 예성 이대위는 저를 직접 불러서 조사했고, 통합을 비롯한 장로교단의 결정과 저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자기 교단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음해를 받은 것일 뿐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회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금일 (10월 31일) 당사자인 변승우씨를 참석시켜 이단성에 관해 면밀히 조사 검토(대질)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장로교단에서 이단성에 관한 내용은 본인을 직접 조사한 바 없는 내용으로 일방적 교리주의에 입각한 결론임으로 그 신빙성이나 사실적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2. 변승우씨와 직접 대면하여 들어본 결과는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고 왜곡된 내용임을 확인함
3. 변승우씨는 자신을 신성시한 내용이 없고 자신도 예수십자가 중심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4. 본 교단의 이단성 있음도 본인의 직접 해명없는 일방적 결론임을 확인했다.
5. 본인의 서적에서 문제된 내용은 (설교 등) 여러가지 용어의 오해와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으로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계속적 수정보완 하고 있음을 밝히며 사과의 내용을 필하다.
6.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부탁함

결의내용 : 본위원회 7인중 위원장을 포함 5인은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인은 변승우씨의 책자를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함 (2인: 허재, 남기재)

2013년 10월 31일

이승용

최경환

남기재

유병철

유병철

유병철

위원장: 유홍욱 목사

서기: 김희신 목사

김희신

4) 통합의 결정

아시는 대로, 이번에 통합 특별사면위에서 서면과 직접 면담을 통해 조사한 후 이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대위에서도 사면을 허락했습니다. 그 뒤 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함으로 합법적으로 사면이 완결되었습니다.

5. 한국교회의 이단정죄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도, 이번 일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단사비는 마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히 9:25)이시고 마귀는 참소자(계 12:10)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용서에는 관심이 없고 마귀처럼 참소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 마귀는 살인자요(요 8:44),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요 10:10). 그런데 한국교회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요한복음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지금 한국교회의 이단 정죄가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목사를 죽이고, 다른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

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과격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정통성 있는 교단으로부터 바른 신앙과 신학의 지도를 받아 한국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끝까지 ‘너희는 우리 옆에 오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2016. 9. 21. 교회연합신문)

“기독교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2016. 9. 21. 크리스천투데이)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토록 사랑과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종교였던 말인가… 한국교회 안에는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불편한 말이 존재한다. 오해가 났든 실제든 간에 한 번 이단으로 지목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한국교회의 독선과 무자비를 비꼬는 말이다.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6. 9. 25. 크리스찬월드모니터)

심지어 통합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님은 뉴스타겟에서 거침없이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저는 제101회 통합 교단 총회에 참석했던 이정환입니다. … 참담한 심

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

이번 사면파동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 원수까지 용서라고 가르치던 장로님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란 과연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란 또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거룩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 용서할 수 없고 긍휼이 없다면 과연 우리 교단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본체인 예수님과 십자가’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 하나님을 믿거나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101회 총회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서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 군중들과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빌라도만 있었습니다. 공의는 침묵했고 양심 있는 총대들은 두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당이 …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 광기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외치는 가냘픈 외침을 짓밟으며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인용해야 할까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참된 기독교라

면 이단정죄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용서하고 해제하는 일에는 빠르고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해왔습니다.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충분히 증명한 대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 이단이라고 해도 사면 반대나 철회는 비성경적인 악행입니다.

디도서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은 ‘이단이라도 한두 번 훈계하여 그들이 들으면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으로 공개사과를 하고, 나이 어린 신학생도 아닌데 2년 동안 교육을 받으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수락해도 통합의 총대들은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끝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이단사냥꾼들에게 교회 협과 교단들, 기독교언론과 교수와 목사들 심지어는 교계 원로들까지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교계를 보면 마치 이단사냥꾼들이 조종하는 거대한 인형극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목사들 속에 팽배해 있는 지독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표식인 형제 사랑(요 13:34-35)은 찾아볼 수 없고 개교회 이기

주의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나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무관심과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마귀를 닮게 되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합처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14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렇습니다.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찢은 부분을 도려내고 살리기 위해 부족한 제가 감히 칼을 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일간지에 광고로 내고, 또 책으로 만들어 모든 한국교회에 발송할 것입니다. 어제 통합이 부관참시한 4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합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의 제왕”인 기자 여러분들도 부디 용기를 내어주시고 사실대로 기사를 써주심으로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통합 특별사면위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 모음!)





1.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

(2016년 9월 23일 크리스찬월드모니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특별사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면이 이단교회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인 양 우려와 비난을 쏟아 붓고 있어 자칫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지난 100회기를 기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한국교회의 화해와 화합 실천을 위한 특별사면위원회를 두고 재심 신청을 받은 뒤 오랜 심사 끝에 교회 4곳과 언론사 1곳, 그리고 권징 책별자 16인의 특별사면을 결의, 선포했다. 특히 사면 대상자 중 교회 4곳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단의 굴레 속에 철저히 외면당하며 오랜 기간 한국교회의 변방에서 비난 속에 존재해온 교회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번 특별사면을 두고 환영과 찬사보다는 우려와 비난이 일색이다. 예장 통합 교단에 대한 비난부터 채영남 총

회장에 대한 비방으로까지 확산되며 그야말로 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그 어느 사안보다도 격렬한 알리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와 함께 원칙 없는 결정이라며 통합 교단의 결정에 대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토록 사랑과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종교였던 말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장 통합의 이번 사면 결정은 원칙 없이 무턱대고 내린 결정이 결코 아니며 검증과 숙고와 다짐 속에 선별하여 이뤄진 것이다. 특히 특사위에서 밝혔듯 그동안 이들에게 가해진 이단의 굴레는 신앙의 본질적 오류나 훼손이 아닌 비본질적 또는 의도하여 양산된 희생의 부분이 컸고, 본질적 훼손이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교정하여 정통교회의 지적과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각서했으며, 이마저도 지금부터 완전한 해제가 아닌 2년의 유예기간을 안전장치로 두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모처럼 한국교회가 화해와 용서, 화합이라는 그리스도 신앙의 근간이며 본질적 가치에 다가간 시도라는 점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단죄와 정죄 등 징계와 책벌에만 익숙했던 한국교회가 모처럼 사랑과 용서, 화해라는 그리스도 신앙의 가치를 실천했음에도 박수보다는 비난을 먼저 꺼내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신앙적 오류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사과와 약속을 다짐했다. 자신의 그동안 신앙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앞으로 정통교회가 제시한 순화교육과 교

리를 따르고 준수하겠다는데 무엇을 또 더 해야 형제로 인정한다 말인가.

한국교회 안에는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불편한 말이 존재한다. 오해가 됐든 실제든 간에 한 번 이단으로 지목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한국교회의 독선과 무자비를 비꼬는 말이다.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거룩한 그리스도 신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과 주님 앞에 크나큰 죄악이며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의 행태가 맞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 사과했으며 앞으로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각서하고 통합 교단이 제시한 순화교육마저 이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주홍글씨의 굴레를 벗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랑과 화해의 가치를 실천해야만 하는 그리스도 신앙에서 보면 실로 지나쳐 보인다. 각서와 순화교육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정죄하면 된다. 돌아오겠다는 이들을 막는 것은 지나친 신앙적 독선이다.

예수께서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욱 깊이 살피셨다. 길 잃은 양도 무리의 양이며 그 양이 길을 다시 찾아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길 잃은 자들에 대해 용서와 사랑보다는 지나친 가혹함만을 견지했다. 이들의 눈물어린 사과와 회개, 개선의 약속마저도 가혹한 시선으로 거부한다면 우리야말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지닌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예장 통합의 특별사면과 교단 우월주의

(2016년 9월 20일 기독교연합신문)

100회 총회를 맞아 ‘화해’를 주제로 내걸고 ‘특별사면’을 선포한 예장통합 총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 12일 베포 예장 통합 임원회와 특별사면위원회의 ‘통 큰’ 은혜로 인해 그동안 ‘이단’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4개 교회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며 기뻐했다. 심지어 교단 내 책임 있는 인사의 입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이면 35만 성도가 늘어난다”는 믿기 힘든 발언도 나왔다. 이단 굴레로 고통받는 수십만의 성도들에게 새 빛을 선사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심상치 않았다. 현직 총회장에 대한 탄핵설이 나돌았고, 총회에는 상소문이 전달됐다. 급기야 증경총회장단이 모여 임원회에 사면 취소를 권고했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일주일일 아닐 수 없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통합 임원회의 강조점은 ‘사면’에 있다. 애초부터 “이단을 사면한다”는 말에는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사면은 ‘지은 죄에 대한 형

별을 면제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 “우리가 시혜를 베풀테니 누구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에 응하라”는 예장 통합의 우월주의가 저변에 깔린 결과물이다.

통합의 사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평양대 부흥 100주년을 맞아 총회 차원에서 대사면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통합은 기장총회 설립자이자 신학적 기동인 김재준 목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기장에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합이 ‘사면’을 운운함으로써 김재준 목사를 ‘죄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장총회는 “통합총회가 당시 파면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 이 일은 없던 일이 됐다.

예장 통합은 에큐메니칼을 교단 정체성으로 내세운다. 에큐메니칼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교단들은 이단규정을 잘 하지 않는다. 기장이나 감리교에 이대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통합은 교단 정체성과 달리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단규정을 해왔다. 자기 신학에 대한 우월주의와 소위 경찰교단으로 교계의 질서를 잡겠다는 패권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이단 연루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시도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정말 이단 굴레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돕고자 했다면, 무분별한 이단규정 행태부터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순서가 맞다.

3. 무조건 이단해제를 반대하는 자들, 과연 그리스도 인들인가? (2016년 9월 21일 교회연합신문)

한국장로교의 대표적 교단인 예장 통합 측이 지난해 제100회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에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교단 내외에서 맺힌 문제들을 풀고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이를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믿는다.

그 결과 지난 12일 통합 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루어졌다.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 레마선교회의 이명범 목사,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가 그들이다.

사실 통합 측이 지난 20~30여년 간 에큐메니칼 교단 정신과는 달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을 양산시켰다. 여기에는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정죄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대교단 통합 측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통합 측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단을 묶은 통합 측이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사면했는데도, 교단 밖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통합 측에서 사면한 사람이나 집단에서 자신들이 이단성의 근거를 따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이를 교계 앞에 명명백백히 제시하고, 또 그 교단이 나서서 이단 시비를 하면 된다. 무엇 때문에 남의 교단의 역사적 결단을 폄훼하는가. 이는 분열주의적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정통성 있는 교단으로부터 바른 신앙과 신학의 지도를 받아 한
국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끝까지 “너희
는 우리 옆에 오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
인가!

4. 사면 취소 이단 관련 단체들, 전면전 나서나?

(2016년 10월 12일 들소리신문)

예장 통합의 이단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취소된 가운데 사면
대상자였던 ... 4곳 중 하나인 변승우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사랑
하는교회에서 10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변 목사는 “우리가 이단에서 사면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장
통합에서 사면해줄 테니 억울한 사람 신청하라고 해서 사면 요청
이유서 내고 질의응답에 응하고 사과하고 다 했는데 결국 사면선
포한 것을 뒤집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닌가” 하고 비난했다. 또 “이
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사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자신과
이명범 목사만큼은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면 취소에 대
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 목사는 또 기자회견 내내 자신에 대한 이단 혐의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한편 ...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이단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
하면서 “한국교회의 이단시비는 마귀를 너무 많이 닮았다. 한국교
회는 용서에는 관심이 없고 마귀처럼 참소에 열을 올렸다.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몰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예장(통합) 총회의 사면취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2016년 10월 6일 크리스천뉴스투데이)

변승우 목사, “불의한 이단정죄 실상을 폭로한다”

변승우 목사는 지난 10월 5일 오금동 사랑하는교회에서 예장 통합 측의 이단사면취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측이 지난 101회 정기총회에서 내린 사면취소 결정에 대해 “사기극”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 측이 사면을 했다가 정기총회에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사기극이다”라며 “예수님과 사도들을 죽인 산헤드린을 닮은 통합 교단에 공의를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산헤드린 법정과 같은 짓을 한 것이다. 할 수만 있는 법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면 이들은 나를 사형이란 판결로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거짓으로 이단으로 음해되어 뒤통수에 걸린 짐승처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지난 8년을 지내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되었다”며 “내가 경험한 불의한 이단정죄의 실상을 폭로한다”고 덧붙였다.

변승우 목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모두 발언의 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중략)

(이처럼 이 신문은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함으로 진실을 알렸다. 그리고 기독교선교신문도 “변승우 목사, ‘불의한 이단정죄 실상을 폭로한다’라는 제목의 같은 날 기사에서 기자 회견전문을 게재하여 진실을 알렸다.)

6. “하나님의 이름” vs “인간의 이름” - 변승우 목사, “예장 통합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 (2016년 10월 6일 크리스천월드)

예장 통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 사면선포하고 “인간의 이름으로” 사면선포를 전면 폐기했다. 이에 대해 변승우 목사 측이 진실과 거짓을 밝히고자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변승우 목사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밝힌 대로 이단이 아니다. 하지만 설사 이단이라 해도 사면반대나 철회는 비성경적인 악행”이라며 “하나님도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통합의 목사, 원로, 총대는 용서를 거부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지, 용서가 없는 이들이 진짜 목사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이단사냥꾼들로 인해 교회협, 교단, 기독교언론, 목사, 교수, 심지어 교회 원로들까지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다”며 “교계를 보면 마치 이단사냥꾼들이 조정하는 거대한 인형극을 보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변 목사는 “기독교의 표식인 형제의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다. 개교회 이기주의는 팽배하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무관심과 비겁한 태도로 목사들이 일관함으로 예수님이 아닌 마귀를 닮아간다”고 탄식했다.

한편, 예장 통합의 제100회기 이단 특별사면위가 오랜 시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면 결의한 것을 채영남 직전 총회장이 선포하였고, 이단사면 대상자들 네 목사는 공개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 하는 예장 통합이 제101회 총회에서 증경총회장들의 압박과 총대들의 항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사면을 선포한 지 열흘 만에 전면 폐기했다.

7. 변승우 목사, 예장 통합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

(2016년 10월 8일 크리스천헤럴드)

“우리는 통합 측에 부관참시당했다”

예장 통합 제100회기 특별사면위원회를 통해서 결의된 이단특별

사면이 전격 폐기되면서, 사면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면대상자 중 한 명인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는 5일 오후 2시 사랑하는교회에서 ‘예장 통합,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모임을 갖고 현재의 입장을 밝혔다.

변승우 목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채영남 총회장은 한교연 소속교단들과 기독교언론 특히 중경총회장의 협박에 무릎 꿇었고, 총대들은 통합이 거짓으로 죽인 우리 교회를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사면을 반대한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진실에 눈을 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변 목사는 “이번 일의 본질은 이단사면이나 해지가 아니라 통합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 발단이고 시작”이라면서, 그 증거로 사면위원회에 제출한 사면신청이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사랑하는교회가 특별사면을 신청한 첫 번째 이유는 이단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절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교회 이단정죄는 거짓과 조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 목사는 사랑하는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은 주로 구원론과 계시론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원론에 대한 거짓 소문, 계시론과 성경론에 대한 거짓 소문,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거짓 소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사랑하는교회의 이단시비 쟁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거짓에 근거한 것이니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양심**

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단 결정 무효선언”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형제를 매도한 당시의 이대위 위원들과 그들과 결탁한 교수들을 징계했어야 마땅한데, 가해자인 통합은 덩치만 믿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변승우 목사는 통합 측이 92회 총회에서 이단 결정을 내릴 당시 절차법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총회 이대위는 ‘전체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5명의 위원 중 고작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 자료들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총회 이대위가 이런 불법적인 결정을 한 사실은 이미 통합 총회의 특별감사위원회 감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며, 이 내용은 통합 교단 94회 총회에서 이단정죄를 받은 사람들과 언론들에 의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 절차법을 위반하면 결의는 무효라는 것은 상식인데, 감사 결과 무효로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통합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계를 보면 마치 이단사냥꾼들이 조종하는 거대한 인형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한 변 목사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목사들 속에 팽배해 있는 지독한 이기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8. 변승우 목사 “예장 통합의 특별사면은 대국민 사기극” (2016년 10월 6일 교회연합신문)

“통합 측 총대들 거짓으로 죽인 우리 교회를 다시 죽였다”

지난 오랜 시간 다수 교단으로부터 각종 이단 시비에 시달린 변 목사와 그의 성도들은 금번 통합 측의 특별사면선포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 했으나, 행복도 잠시 고작 10일여 만에 이 모든 일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변 목사는 “통합이 거짓으로 죽인 우리 교회를 총대들이 다시 한 번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채영남 총회장은 한교연 소속교단들과 기독교언론, 특히 증경총회장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고 지적했다. …

특히 통합 측이 특별사면과 관련해 일방적인 철회를 했음에도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당사자들이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통합 측이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 이에 응했고, 1년여간 특별사면위원회가 요구한 대면 조사와 서면 제출 등에 성실히 임해 특별사면선포까지 이뤄졌음에도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한 데 대한 지적이다.

변 목사는 “통합 측이 양심이 있다면 나와 우리 교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단 결정 무효 선언을 했어야 한다. 또한 새빨간 거짓

말로 형제를 매도한 당시의 이대위 위원들과 그들과 결탁한 교수들을 징계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통합은 덩치만 믿고 적만 하장으로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 얼마나 더러운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 …

변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번 통합 측의 이단사면과 관련한 논란의 발단이 사면이나, 해지냐가 아닌, 애초에 통합 측이 거짓으로 이단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 목사는 통합 측이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데 있어 단 한 번의 소명기회도 준 적이 없음을 밝혔다. …

변 목사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소명기회를 준다. 그런데 교단이 한 교회를 상대로 일체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영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단 단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면서 “통합 측은 내게 소환은 물론 서면이나 유선통화 등 그 어떤 통로로도 일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에 대해 알려진 구원론, 계시론, 성경론, 우상화 등과 관련한 이단 혐의가 모두 왜곡, 조작된 것이며, 심지어 통합 측이 **지난 제92회 총회에서 이단 결의를 할 당시, 이대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에 대해 통합 측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의해 무효로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변 목사는 한국교회 이단정죄의 중심에 있는 이단사냥꾼들을 향해 “**영적 살인과 인격적인 살해를 서슴지 않는 살인자들**”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교수들, 목사들, 언론들, 이 나라의 사법부도

방관으로 일삼은 살인방조죄를 지었다”고 규탄했다.

9. 기장 홍성표 박사, 예장 통합은 반성해야

(2016년 10월 7일 뉴스타겟)

반복은 장자교단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한국기독교장로교단 소속 홍성표 박사가 통합 교단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 홍 박사는 예장 통합 교단은 명실상부한 한국 개신교의 중심에 서 있는 교단이며 근현대 민족사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을 보낸다고 했다.

그는 통합의 자리는 개신교의 한 교단의 자리가 아니라 개신교의 리더와 민족사의 중심으로서 앞으로 분단된 통일의 문제를 여는 교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이번에 총회 대표가 총회장으로서 선언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자리에 있는 개신교의 중심인 만큼, 통합의 행보가 너무나 경솔하고 가벼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합이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카이로스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10. 사면선포 취소 당사자들 항의성 기자회견

(2016년 10월 7일 예정뉴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 교단으로 부터 이단으로 지정되었다가 사면이 선포되었지만 불과 며칠만에 다시 취소된 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舊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변 목사는 자신을 포함한 4인은 예정통합 총회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는 심정이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날 변 목사는 한국교회로부터 거짓과 조작에 의해 이단 정죄됐다고 주장했다. 예정 통합은 물론 자신을 이단 규정한 모든 교단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이단사냥꾼들에 의해 놀아난 결과며, 그 과정에서 일체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합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일의 본질은 이단사면이나 해지가 아니라 통합에 제출한 사면신청서에서 밝힌 대로, 통합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고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 통합 총회가 자신을 이단 규정하는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 (이단사냥꾼들의) 거짓과 조작에 근거해 이단 규정을 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면 신청을 한 것이지, 이단성을 인정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변 목사의 설명이었다.

변 목사는 “제가 소속됐던 백석을 제외하고 다른 교단들(합동, 고

신, 합신)은 저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고 서면으로 조사한 일도 없다”면서 “처음부터 통합처럼 정죄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므로 그들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101회 총회 시 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발언이 소송의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도 있다. 회의 중 총대들이 계속되는 공격성 질의에 대하여 총회장은 폐기결의의 가부를 물으면서 “민형사상 엄청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1,500명 총대 여러분과 각 노회가 같이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식으로 말문을 막았다는 것이다.

11. 한국교회 이단 논쟁에 대한 새로운 전망

(2016년 9월 30일 기독교신문)

박기성 목사 (예드림교회·함동 교단 총회이대위 전문위원)

2016년 가을, 한국기독교교는 이단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 통합의 해프닝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다들 자신들만 옳다고 한다는 데 있다. ‘개혁주의’가 아니면 다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은 어떤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한다. 굳이 신학적인 평가를 하자면 ‘복음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

해야 한다. ...

장로교에 속한 교단들이 ‘제101회 총회’라는 것을 기점으로 ‘과거사의 정리, 화해, 화합’ 등과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일의 구체적인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다툼과 분열과 정죄’의 과거가 ‘화해와 화합과 일치와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돌아보아야 한다. 이 일에 한국교회사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정죄된 이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공통분모를 가진다. 미숙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아파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야단도 치면서 바른길로 지도한다. 또한 맏형도 동생들을 감싸면서 잘 지도할 책임이 함께 있다. 목회의 현장에서 신학적 정체성 확립의 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발언과 행동에 대하여 책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능사(能事)는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이단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재정립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즉 리셋(Reset)한 상태에서 새롭게 원점에서 연구해서 그들의 주장과 주의를 살펴보고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 공익성, 형평성’을 가지고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 ...

역사의 정리에 있어서 예외도 있다. ‘교주를 우상’처럼 받드는 집단이나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개인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줄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 제공한 변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교계 언론을 통한 ‘사과성명’조차도 ‘모략’이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있는 이단들이다. 이처럼 아무리 리셋(Reset)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버튼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 교단의 차이점은 인정하되 성경적인 관점과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2. 본디오 빌라도가 웃는다. 본디오 빌라도도 소명기회는 주었다! (2016년 10월 7일 뉴스타켓)

최근 이단논쟁으로 교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영남 전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와 철회, 총대들의 사면논의자체 폐기, 3년 동안 사면 재론하지 않기, 변승우 목사의 대국민 사면 사기극 기자회견으로 이단 관련 사면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도 본질적인 신앙고백에는 하자가 없는데 허위조작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예장 통합 사면특위위원들과 이대위원들은 변승우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단감별사들의 처음부터 잘못된 무분별한 이단파동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단감별사들의 역할이

큽니다. 이단감별사들은 대부분이 용서와 화합보다는 정죄와 분리를 선택하고 있고, 미래보다는 과거를,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거대 언론과 각 교단의 이대위의 사람들과 연계되어 한 군데서 이단으로 하면 다른 교단까지 서로 연결하여 도미노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자는 해지하면서 성령잉태론자와 삼위일체론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 교리적 모순에 빠졌고, 정체성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보다 못한 교단입니다.

13. 통합 교단은 사죄할 줄도 모른다!

(2016년 10월 12일 들소리신문)

100회 총회 권위와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이단혐의자들의 사면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101회 총회가 무효화시키는가? 100보 양보하여 그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해도 사안의 비중상 “사죄”를 비는 대국민선언이 나와야 한다. 이는 법이고 질서이다. 어느 누구도 이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

100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사면선포를 할 때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자유세계에서는 언론이 동반권력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자 관계이기도 한데 무섭지도 않았을까?

이 모두를 떠나서 이단혐의자가 되어 살아온 교회나 목회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2~3년 동안 지켜보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절차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거치기로 했고, 충족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면철회를 하겠다는 시행령까지 발표했던 교단이 단 한 줄 “사죄문” 발표도 없이 없던 일로 뒤집어버려도 되는가?

통합 측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100회 총회가 곧 101회 총회임을 말이다. 100회와 101회가 각기 별도의 존재가 아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나 싶어 안타깝다.

다시 말하면 101회가 100회 총회의 모든 과정을 무한 책임을 지고 동반해야만 목회도 같이 하고 천국에 가더라도 같이 가는 동반자, 더 나아가서 동일 생명관계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에 동의한다면 통합 교단은 뒤늦게라도 교회와 사회 앞에 사과문을 발표하라. 그리고 사면선포를 했던 이단혐의 당사자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양해를 구하는 등 일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사면선포 대상들에게 사과나 사죄 등 양해가 될 만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는 “인권문제”가 된다.

혹시 교회나 교단에게 면책특권이 있는가 하는 착각을 하지 말고 사면 절차가 잘못되었다든지 정기총회의 위임사항이 아닌 내용이었는데 100회 임원회가 과욕을 부리다가 끝사나운 현상을 만들었다 해도 통합 측은 사과나 사죄 이상의 묘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같은 경솔한 행동으로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 모두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4. 통합 측 교단의 사면 번복 바보짓!

(2016년 9월 28일 기독교시민연대논평)

한국교회 지도자, 겁 많고 십자가와 순교하는 마음 없다.

금번 통합 측 100회 총회 채영남 총회장은 화해라는 주제로 통합 측 100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서 사면선포 의사봉을 치고 나서는 통합 측 이단사냥꾼들의 공작에 협박당하자 사면결의 번복 취소라는 바보짓을 하였다. 한국교회에서 통합 측 교단의 사면 취소라는 몹쓸 짓으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겁 많고 십자가와 순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게 문제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채영남 총회장이 100회 사면선포 번복 철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똑심 있게 밀고 나아갔다면 한국교회와 세계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15. 통합 측 ‘갑질’에 교계적 대응 필요

(2016년 10월 12일 교회연합신문)

지난 수년간 교계 질서 파괴하고 분열 야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측의 특별사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대로 거세게 일고 있다. ... 이는 통합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통합 측은 지난 101회 총회에서 4인이 사회법 소송을 걸어올 것을 대비해, 각 노회와 교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총대들의 이러한 결의는 이번 특별사면 사태에 있어 통합 측이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과 4인에 대해 교단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반증이었지만, 이들은 당사자들에 대한 사죄나 보상보다는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택했다.

통합 측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법적 대응을 결의하며, 교단 혼란을 수습 했다고는 하나, 특별사면 사태에 대한 주변의 비난이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제100회기의 사업인 특별사면에 대한 성과를 101회 총회에서 원천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나, 임원회나 총회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향후 사회법에서 가려질 것이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할 것이지만, 도의적 문제나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총회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특별사면을 취소했다는 사실은 어지간한 변명으로는 교계를 쉽게 납득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 있지만, 통합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여타 교단들도 한국교회의 최대 교단인 통합 측과의 관계를 고려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바뀌는 교계의 정세는 당장 내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법, 만약 통합 측이 타 교단과의 조그마한 마찰이라도 생긴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사면을 취소한 사건은 통합 측을 궁지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

이미 통합 측은 지난 수년간의 행보에서 교계 분열과 분란에 충분한 ‘갑질’을 해왔다. 이에 대해 여타 교단들이 당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불만은 차곡차곡 쌓였을 것이고, 이는 언젠가 통합 측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폭발할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이미 극에 다다른 통합 측의 갑질이 더 이상 교계에 서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통합 측은 이번 총회에서도 여실히 갑질을 자랑했다. 이번 제101회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증경총회장단이 나와 지난 시간의 금권과 교권 정치를 인정하고, 이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대들은 이들의 회개에 박수로 화답했고, 장자교단으로서의 자성의 본을 보인 이날의 모습은 언론에 매우 아름답게 묘사됐다.

이들의 회개에 진정성을 묻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금권선거와 교권 정치에 대한 반성을 이런 이벤트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철저한 농락이자, 이 또한 통합 측만이 할 수 있는 갑질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특별사면 당사자 4인의 회개는 이번 경우와 심하게 비교됐다. 이들은 특별사면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지난 시간 물의를 일

으킨 것을 사죄하고, 통합 측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회개와 맹세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는 통합 측은 어떻게 화답했는가?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철저히 짓밟아 쓰레기통으로 처넣고 말았다.

그렇다면 통합 측에 있어 남을 용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우리)는 되고 너(회)는 안 되는가? 교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통합 측의 지독한 갑질에 대한 전 교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다.

16. 이단의 울무를 쓴 목회자들의 한의 소리(?)

(2016년 10월 10일 기독교한국신문)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는 2008년 이단으로 규정돼 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변 목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처, 자신에 대한 이단사면과 사면 백지화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사면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마디로 용서도, 사랑도, 긍휼도, 정의도 없는 교단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예장 통합 측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군림하는 교단이라고 비난했다.

변 목사의 강도 높은 비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사면신청을 낸 이후, 이유서를 제출하고, 사면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질의에 응답했다. 그리고 동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한국교회에 사과도 했다. 또 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년 동안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 목사는 통합 측으로부터 이단성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문제는 채영남 제100회 총회장과 제101회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총회의 여론과 증경총회장의 강도 높은 비난에 무릎을 꿇고, 다시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를 비롯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목사, 베뢰아 아카데미 김기동 목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한 사면을 10일 만에 철회했다는 것이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단사면을 요청한 4명의 당사자들은 공교단인 통합 측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4인은 자신이 이단의 울무를 쓴 것은 괜찮지만, 이단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이단의 울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사실 이들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과 교인들 중, 결혼을 앞둔 청년은 파혼당하고, 결혼한 교인은 이혼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일부 교인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특별사면 선포식에서 이 같은 문제를 낱낱이 열거하며, 한국교회의 화합과 화해를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10일도 못가 빛을 바랬다. 제101회 총회에서는 특별사면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3년 동안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4인은 특별사면 선포식이 끝난 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교회에 사과하고, 2년 동안 교육을 받겠다고 굴욕적인 싸인을 했다.

그래서 이단의 울무에 걸린 목회자들은, 이 울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왔다. 그리고 채영남 총회장의 사면선언에 당사자들은 물론, 교인 모두가 축제에 휩싸였다. 그것은 얼마 가지를 못 했다. 여기에 분노한 이들 4명은 공동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해자인 통합 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4명의 목소리는 이단의 울무를 쓴 목회자들의 한의 소리였다.

특히 변승우 목사는 통합 등의 이단규정을 불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거짓과 음해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단을 규정하면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기회도 주지를 았았다는 것이다. 이단규정을 위한 연구조사이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흠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한국교회 교인이 아니냐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매년 총회 때만 되면 한국교회는 이단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를 았고 있다. 금년도 가을 장로교총회도 이단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를 았았다. 이웃 교단과 이웃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했다.

하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의를 내세운 교단도 없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군림하는 골리앗 같은 교단만 있었다. 교단 이기주의와 일부 이단사냥꾼들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확인했다. 이 같은 모습은 침몰해가는 한국교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목소리다. 그리고 일부 교인들은 한국교회 이단규정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영미의 지배자의 신학과 식민지신학, 그리고 근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나면 이단의 울무를 씌우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

17. 예정 통합의 100회기 총회가 저지른 잘못은 실로 심각하다. (2016년 10월 1일 크리스천언론인협회 2016년 號外 04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사면 소동으로 대상 교회 성도들을 두 번 울리는,
실로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들의 오만함의 끝은 어디인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면해준다고 들쭉서놓고 사면 대상이었던 4개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 선포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사면 취소를 했다. 잔인하게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 사기 사면을 자행한 것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약 50만 명을 상대로 예정 통합 100년 역사에 먹칠을 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 뿐만 아니다. 예정 통합 교단의 채영남 직전 총회장은 한마디 유감 표시도 없이 당당하게 ‘사면 취소’ 성명서를 발표했다. ...

도대체 왜 잔잔한 호수에 쓸데없이 돌을 던져서 스스로 망신살의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다. 자타가 공인하는 장자교단으로서의 역사적인 제100회기가 밋밋하게 끝나가는 것이 아쉽고 섭섭했으나보다. 그래서 한국교회 앞에 역사적인 제100회기의 존재감과 위상을 세워보려고 벌인 의도적인 쇼였을까? 설사 그렇더라도 그들(사면된 4개 교회)은 제100회기 예정통합 총회가 맘껏 제멋대로 이리저리 들쭉서놓고 아님 말고 식의 없었던 일로 돌려놓으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다. 그들도 엄연히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의 수혜자들이다. 그들은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부족했던 부분들,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 속앓이를 하며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한 특사위에서 밝혔듯이 이들에게 가해진 이단이란 굴레는 신앙의 본질적 오류나 훼손이 아닌 비본질적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양산된 부분이 컸다.

일방적 마녀사냥식이 아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훈도했더라면 이단이라는 사슬에 묶일 필요가 없는 교회들이었다. 이번 특사위의 결정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특별사면을 선포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사람의 이름으로 사면선포 취소를 했다.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간단하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회개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한국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그들이 '사면 취소'를 당할 만큼 정죄의 대상들인지 묻고 싶다.

채 직전 총회장은 중경총회장들과 기타 좌우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압력을 가한 세력들도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앞세워 수많은 교계 기자들 앞에서 제100회기 예정 통합의 수장인, 채 총회장이 '사면 선포'한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는 단지 교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도구와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낸 꼴이 되었다.

애시당초 “제100회기 임원회와, 이대위, 특사위, 총회장의 이름

으로 사면을 선포하노라(합니다)”고 했다(내 말이)면 ‘사면 취소’를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의 이름으로 했으니 실수했다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욕 몇 번 들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로 ‘사면선포’를 했다는 것은 감히 사람이 취소하거나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압력이나 외압이 있더라도 채 직전 총회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갔어야만 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사면선포’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면 취소’는 총회와 총회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선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만이 취소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일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만홀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예정 통합의 하늘을 치솟는 교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가, 능멸하는 모양새가 됐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다. 신되는 땅에 떨어졌다. 자업자득이다.

지금 예정 통합은 그 무소불위한 교권이 하나님을 밟고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잘난 교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 위에 군림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 예정 통합 100년의 역사에서 벌어졌다. 한국교회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패악스런 오만과 자만의 질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개탄스럽다. 마치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타락상을 보는 것만 같다. …

이제 예장통합 총회장과 임원들, 이번 사면 사건에 동참했던 관련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잣더미 위에 앉아 머리에 티끌을 날리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동네 개 취급한 패악짓을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이다. 신학생 시절에 분명히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붓을 새로 빨아서 썼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번의 사건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본다면 한국교회 교권주의가 하나님의 성호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자리를 지키는 도구와 방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녕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도 종종 사람들과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다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담을 하곤 한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 또는 약속합니다. 기필코 지키겠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부모님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무슨 일이 있어도 맹세한 약속들을 지켜나간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흔하디 흔한 ‘철수, 영희’ 이름보다 우습게 여기는지 개탄할 일이다.

예장 통합 제101회기 총회가 끝났다. 일말의 신앙양심을 기대했던 것이 지나친 욕심이였을까? 사면 취소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회개도 유감표시도 없었다.

100년을 시작하는 제101회기,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 크리스찬언론인협회 회장 고정양 목사

18. 하나님의 이름을 황령! 그 위에 우뚝 선 교권!

(2016년 10월 1일 크리스찬언론인협회 2016년 號外 04호)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특별사면에 따른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채영남 총회장,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 이홍정 사무총장 등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사면위원회 경과보고와 사면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제 100회기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견’에서 법적 자문을 받아 회기 내 교단 헌법과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특별사면을 공포한다고 했던 것이다. …

그런데 채영남 직전 총회장은 2016년 9월 1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단대상자들에 대해서 형제자매라며 사면을 선포한 지 10일이 채 되지 않은 9월 22일에 21일자로 성명서를 내고 “이단사면(해지)과 관련한 교단의 절차에 대한 해석과 교단을 염려하는 총대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9월 12일에 행한 총회장의 이단사면 선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은 교정을 하고 교육을 받겠다고 해도, 통합 교단의 일부 기득권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서겠다는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다. ...

결론적으로 이번 통합 100회 총회 임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면을 선포하고 사람의 이름(총회장)으로 취소한다고 밝힌 꼴이 되고 말았다. ...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전 총회장들과 이단감별사가 뒤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 ...

한국에서는 이들을 ‘이단감별사’라 부르기도 한다. ‘이단감별사’란 명칭은 이단을 감별하는 전문가로 자처하는 자에게 붙인 냉소적, 풍자적 명칭인 것 같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기득권 지키기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단감별사’의 검증과 팩트, 확인 없이 교계 대변인으로 전락한 종교언론의 악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사실검증’과 ‘진실보도’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단조작자들이 이단으로 명명한 것은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치판단, 정치적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갖고 정죄해야 지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서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단정죄하면 한국교회는 계속 추락하고 말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종교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

이번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반영한 한국교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가 될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갈수록 권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의 모습에 젊은이들이 타 종교나 이단으로 몰려가고 노인들만 남아 30년 후에 100만 이내의 신도만 남은 미래교회연구소의 예측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변명도 반론도 하지 못하고 마녀사냥식의 정죄에 희생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난 세월들로 족하다. ...

정통교리를 이용해서 성령운동 하는 자들까지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이단사냥꾼들은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었다. 필자는 오히려 이들 이단사냥꾼들이 진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심정이다.

19. 변승우 목사 기자회견 (2016년 10월 7일 서울매일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1회 정기총회에서의 특별사면 철회와 관련, 신앙인으로서의 정도를 저버린 통합 교단의 교권 횡포에 맞서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가 먼저 반격에 나섰다. ...

‘예장 통합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승우 목사는 “우리는 예장 통합에 가서 먼저 사면해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먼저 사면해준다고 하며 억울함을 신청하라 해서 시작된 일이었다”고 밝힌 뒤 “지난 1년여간 출석하라 해서 출석해 조사받고, 서류 제출하라 해서 제출하고, 답변하라 해서 답변했으며, 사과하라 해서 시키는 대로 사

과까지 다 했는데 결국 결과는 부관참시라는 처참함뿐이었다”면서 “이는 사면 사기극이며 갑질 횡포”라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비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승우 목사는 사태의 출발과 본질이 이단규정의 부당성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짚었다. 그는 “이번 일의 본질은 이단사면이나 해지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이단으로 정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는 ‘이단성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과 ‘구원론과 계시록에 집중된 거짓과 조작, 우상화 주장의 증거들에 대한 해명’, ‘절차법상 위법이 있었던 사항’ 등이 조목조목 거론된 사면위원회에 제출한 사면신청 이유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통합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고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단규정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은 채영남 전 총회장이 발표한 사면선포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은 성경과 기독교를 믿는 많은 교회와 형제들까지 이단으로 결의하고 담을 쌓아왔음’을 밝힌 사면선포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양심이 있다면 저와 우리 교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단 결정 무효선언을 했어야 하며, 새빨간 거짓말로 형제를 매도한 당시의 이대위 위원들과 그들과 결탁한 교수들을 징계했어야 한다”고 밝히고 통합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가해자인 통합은 덩치만 믿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이

얼마나 더러운 갑질인가”라고 비꼬았다.

변 목사는 또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를 설명하며 사실관계 보다는 교권의 논리로 흐르는 교단 정치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채영남 총회장은 한교연 소속 교단들과 기독교언론 특히 증경총회장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고, 총대들은 통합이 거짓으로 죽인 우리 교회를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진실에 눈을 감았고, 너무도 사악하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압력에 못 이겨 번복으로 뒤집은 총회장을 향해 “비겁하다”고 원망했으며, 증경총회장들과 서명을 진행한 교수단 그리고 총대들에 대해서는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단성 없음)을 확인했는데 무턱대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며 “무슨 목사가 그렇고 무슨 교수가 서명을 하냐”며 비난했다. 또한 통합 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 속칭 이단사냥꾼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변 목사는 자신이 경험한 불의한 이단정죄의 실상을 폭로한다며 과거 예장 백석, 합동, 고신, 합신 측에서 이단 정죄된 사실들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예장 통합 교단 뿐만 아니라 타 교단의 결정들도 거짓과 왜곡에 근거한 것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실에 기초해 바른 결정을 내린 곳도 있었다며 과거 기성, 한기총, 예성과 이번 통합사면위의 결정 등을 들며 ‘이단성 없음이나, 사실과 다름’으로 인정해준 교단들의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통합의 사면위와 관련해서는 “서면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이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대 위에서도 사면을 허락했다”며 “그 뒤 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함으로 합법적으로 사면이 완결되었다”고 이 단성 없음에 의미를 부여했다.

20. 백로가 희다 하여 공격하는 까마귀 떼, 한국기독교계 (2016년 10월 7일 세계경제신문)

세상 법정도 변호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에 대한 변론

[곽 기자의 취재현장] 교계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오늘은 기자이 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써,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불의한 이단시비 논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인 교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며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처럼 잔인한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일 중세시대였다면 실제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고문하고 화형했을지도 모를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행위는 사악하고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시행되던 시기처럼 한국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무참히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에 흰 백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검정인 것이 너무 드러나니 이를 시기하여 때로 달려들어 공격하는 까마귀 떼 꼴입니다.

곽 기자는 최근 한 교회에서 진행된 ‘통합의 대국민 사면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통합의 대국민 사면 사기극’이란,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라 불리는 거대 교단 예장 통합 교단이 지난 총회 100회기를 맞아 특별사면위를 설치하여 그동안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죄되어 피해를 입어 왔던 4개 교회(사랑하는교회, 서울 성락교회, 레마선교회, 평강제일교회)들에 대해 합법적 교단 내 과정을 통해 사면선포까지 했다가 다시 취소해버린 일을 말합니다.

통합 교단은 지난 100회기 총회에서 ‘화해의 원년’을 선포하고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특별사면을 결의하고 이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4개 교회를 사면하고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통합 교단의 채영남 총회장님은 지난 9월 12일 사면선포를 할 당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경과 복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포해 놓고는, 10일 만에 증경총회장들의 압력에 의해 선포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101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특별사면위의 심사과정과 결정 자체를 폐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칭 한국기독교의 ‘장자교단’이라 자처하는 교단의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들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면해주겠다고 시작하고 적법한 절차

와 과정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어떻게 사람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번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행정 법으로 불법인 이런 불법을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지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통합 총대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까?

거대 교단 통합이 이단으로 때려버리면 다른 교단들도 줄줄이 이단으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 거짓 소문으로 이단에 몰려 그동안 성도들이 이혼당하고, 파혼당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받아왔던 피해를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와 비겁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덮어버리려는 것입니까?

4개 교회는 지난 몇 개월간 밤낮 고심하며 통합의 사면조사 과정에 충실히 임하여, 분명히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고 거짓으로 매도당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고, 사실 사과할 일도 아니지만은 통합이 사면조건으로 요구하기에 한국교회 앞에서 공개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이단시비로 성도들과 함께 겪은 피해로 인해 북받치는 감정으로 울음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들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의 형제를 두 번이나 죽인 장자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 굶아서 터질 때가 된 한국교회 이단시비 문제… 세상 법정도 해결 못해주고 있는 실정

사실 문제는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통합 교단의 행태뿐 아니라, 이단시비로 몰리는 교회들에 대한 기독교계 타 교단들의 과거 결정들도 거짓과 왜곡에 물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이를 통해 입는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에 대해 세상 법정도 이들을 변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5일 ‘대국민 사면 사기극’ 기자회견을 가졌던 피해 교회의 한 담임목사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불의한 이단정죄 실상을 폭로하며 “통합뿐만이 아니라 저에 대한 타 교단의 결정들도 거짓과 왜곡에 근거한 것이며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백석 교단의 경우 이 피해 교회를 조사하여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고서도 이듬해 아무 이유 없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 교수들이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서도 총회 때 재판도 없이 피해 교회 담임목사님을 제명출교시켰습니다.

합동 교단 또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인(마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에 근거했다고 하여 어이없이 ‘신율법주의’로 매도했고, 고신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며 불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신 교단은 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과 신사도운동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

나 이 교회는 이미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라면 관련단체인 WLI 먼저 이단 정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교계 이단시비에 있어서는 살인방조죄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꾸라지처럼 거짓소문을 유포하여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사냥꾼들을 법정에 고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비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는 동안 이단으로 음해당한 교회 성도들이 이혼당하고, 파혼당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단사냥꾼 악인 몇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나라의 법은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 교회 담임목사님은 “법정에서 통합이 거짓말을 다 인정해도 결론은 다 다르게 때린다”며 “우리가 통합을 상대로도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통합 변호사가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판사가 답답해서 통합 변호사는 반론해 봐라 그러는데 반론을 못했다. 왜냐하면 다 사실이니까, 통합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너희도 우리보고 이단이라고 그래라’ 그게 말입니까? 그리고 통합 변호사가 반론할 게 없으니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우리 통합은 개떡같이 믿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것이고 저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것이다’ 이게

통합 변호사 대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정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은 통합의 손을 들어줬어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마저 이렇게 죽었으니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피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도 판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니 정말 통탄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그 피해 목사님은 헌법소원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곤한 싸움이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이단사냥꾼이 거짓말을 하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고 철퇴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변호사가 헌법소원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법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 아무리 이단사냥꾼들이, 교단들이 거짓으로 교회들을 매도하고 죽이는 일을 해도 현재는 전혀 그들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때마침 한반도에 태풍 피해가 심한데 교계에도 주님의 공의로운 태풍이 불어 이단시비에 대한 모든 거짓과 불의를 거둬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남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21. 변승우 목사, 예수장로교통합' 이단사면 철회 규탄' 기자회견 '대형 교단들의 갑질 비난'

(2016년 10월 11일 여성종합뉴스)

예장 통합 특별사면위원회의 사면과 “사면 취소”라는 결론으로 교계의 갑질에 기독교인들의 비난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변승우 목사는 교계 안 이단제기 해명을 위해 노력해왔고 해당 교단들과 이단대책위원회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기성과 예성, 한국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받기까지 했다.

또 지난 2015년 예장 통합이 제100회 총회에서 ‘화해’를 내세우며 특별사면위원회를 설치해 사면신청을 했다. 그렇게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당시 예장 통합 채영남 총회장이 9월12일 역사적인 특별사면 선포를 했으나 특별사면은 단 10일 만에 철회됐고, 제101회 총회에서는 특별사면 선포를 원천무효 폐기하며 3년간 재론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은 대형 교단의 갑질로밖에 볼 수 없다.

변승우 목사의 반론 요지.

(중략)

이렇게 매도해놓고 수개월 동안 사면해준다고 하면서 요리조리 교회를 괴롭혀오다가 통합사면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을 선포하고 며칠 지나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사면을 철회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성서에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는 말씀이 있다. 또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성서 말씀도 있지만 빛과 소금은 커녕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꼴이 돼버렸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성경의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할 정도다. “통합 교단 목사들은 성경을 안 믿나 보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아니지만 자료 한 가지를 첨부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거짓말과 꾀변을 늘어놓는 양심에 화인 맞은 통합!!!

통합의 대국민 사면 사기극에 피해를 입은 4단체가 법에 호소하자 통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가관입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거짓말과 꾀변에 능한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1. 통합은 법정에서마저도 금방 들통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소송 진행 과정 중에 통합이 보내온 답변서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 건 ***** 총회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 권 자 이명범 외 5명

채 무 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중략)

2.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

가. 채무자의 특별사면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사면대상(책벌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처리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제100회 총회가 특별사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허락한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갑 제1호증 제100회 총회회의록 4면).

1.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받은 자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특별사면 방법:

- 1) 사면형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
- 2) 사면신청 방법: 가) 본인, 친족, 해당치리회가 신청
나) 특별사면위원회가 직권으로 신청
- 3) 사면대상: 1912. 9. 1. 총회 창립~2015. 9. 17. 제100회 총회 폐회
시까지 책벌받은 자
- 4) 사면방법:
 - 가)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는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서 특별사면(해벌) 지시한 경우는 소속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해벌 절차를 밟아 해벌함. 해벌 지시는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때에는 재촉구하고 총회에 보고함.
 - 나)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함.
- 5) 사면대상 심사 : 특별사면위원회

즉, 채무자의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특별사면위원회로 하여금 사면대상자에 대해 심사하도록 한 것일 뿐이지, 총회 결의 없이 전권으로 결정·시행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심사대상에 대해선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와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은 채무자 교단 소속의 교인으로서 채무자의 교단 헌법에 따라 시벌 중에 있거나 그 결과로 면직, 출교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 교단에

속한 채권자들이 애당초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특별사면위원회를 주도해온 몇몇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총회특별사면(해벌) 시행 공고’를 하면서 총회결의 내용과 다르게 ‘타 교단 교인 및 단체’를 대상자에 포함시켜 공고하고 {소갑 제 2호증의 2 총회특별사면(해벌) 시행공고}, 그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사면심사 절차를 진행해 온 것입니다.

3. 사면대상:

가. 1907. 9. 17. 예수교장로회 대한로회(독노회) - 2015. 9. 17. 제100회 총회 폐회 시까지 각 치리회에서 책벌(제명) 받은 자 및 행정소송 결정에 따른 실권자

나. 이단사이비로 본 교단이 규정한 경우, 타 교단에 속한 자나 단체 및 기관이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가 특별사면위원회의 권한을 본질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100회 통합 총회 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별사면대상은 통합 교단에 속했다가 면직이나 출교를 당한 자들 중에서 사면을 신청한 자들을 단순히 심사하는 권한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위원회의 몇몇 인사들이 특별사면대상의 범위와 권한을 임의로 바꾸어 신문지상에 사면공고

를 내고, 사면절차를 거쳐 사면대상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사면대상을 결정할 때는 다시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본인들이 제시한 문건 자체에서 특별사면 시한을 제100회기로 못 박았고, “총회이단대책 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제 100회기 안에서 총회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사면위원회에 사면대상을 선정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제100회기 안에 어떻게 특별사면이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교묘하게 문건을 잘랐지만 총회회의록 원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6) 사면 일정:

- (1) 특별사면(해벌) 신청기간(60일)
- (2) 특별사면위원회 심사기간(60일)
- (3) 특별사면(해벌) 지시: 100회기 상반기 중

신청, 심사, 사면 지시 모두 100회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100회기 안에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고, 애초부터 총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통합은 특별사면 위원회가 임의대로 사면대상자들을 타 교단에 속한 자까지 확대해서 공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총회 특별사면(해벌) 시행 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교단은 지난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받은 이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제100회기에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것을 허락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회 특별사면(해벌)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면형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내에서 특별사면(해벌)으로 함
(근거 : 총회 헌법 권장 제144조 해벌과 청빙, 제145조 출교의 해벌, 제146조 면직의 해벌, 제147조 해벌 처리회,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재관계류와 교단탈퇴)
- 2. 사면신청방법** 가. 본인, 친족, 해당처리회가 신청 나. 특별사면위원회의 직권으로 신청
- 3. 사면대상** 가. 1907. 9. 17. 예수교장로회 대한로회(독노회) - 2015. 9. 17. 제100회 총회 폐회시까지 각 처리회에서 책벌(제명) 받은자 및 행정소송 결정에 따른 실권자
나. 이단사이비로 본교단이 규정한 경우, 타교단에 속한 자나 단체 및 기관이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
- 4. 사면대상심사** 1차/특별사면위원회 심사1,2분과 2차/특별사면위원회 전체회의
- 5. 사면일정** 가. 특별사면(해벌) 신청기간 / 2016년 1월 25일 ~ 3월 25일(60일간)
나. 특별사면위원회 심사기간 / 2016년 4월 1일 ~ 5월 30일(60일간)
- 6. 사면신청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309호(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 특별사면위원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

- 위 원 장 : 김 규 목사 / 서기 : 이정원 목사 / 회계 : 최내화 장로
- 위 원 : 이정환 목사, 정도술 목사, 김동은 목사, 한재엽 목사, 김경진 장로, 이덕선 장로
- 전문위원 : 최수남 목사, 최호철 장로, 강병직 목사

※ 신청양식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주소 : <http://www.pck.or.kr>

2016. 1. 2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채영남
특별사면위원장 김 규



“3. 사면대상 ‘나’ 항목”이 특별사면위의 임의적인 결정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공고가 나간 16. 1. 23.부터 사면선포가 이루어진 16. 9. 12.까지 이 공고를 바로잡은 일이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사면대상이 통합 교단으로만 국한되었다면 이 공고가 나간 뒤 바로 정정해야 상식 아닙니까?

이 공고를 본 억울한 교회는 당연히 신청을 하였고, 사면일정에 따라 질의서에 답변을 하고 직접 출석해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선포까지 된 마당에 ‘원래 사면대상이 아니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을 수 있는 곳이 통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의 결정을 믿고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까?

2.통합은 새빨간 거짓말에 이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음의 내용 역시 통합 측에서 보내온 답변서의 일부입니다.

1.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

가. 채권자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합니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교단 소속의 지교회나 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임원회나 총회가 채권자들에게 대한 종전의 이단 결의를 해지하거나 또는 그 해지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권자들이 속한 교단이나 채무자 교단 내에서 누리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현존하거나, 나아가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결의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더욱이, 채권자들에 대한 이단 결의나 이 사건 각 결의는

종교단체인 채무자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교리 해석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 점에서 어느 모로나 사법심사의 대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교단 소속의 지교회 또는 교인이 아니고 또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그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이없게도 통합은 자신들이 이단사면선포를 번복한 행위가 통합과 우리 교단 내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먼저, 통합 내에선 사면이 안 되면 이단이고 사면이 되면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없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단 내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사면을 신청했습니까? 아니지요! 통합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로부터 음해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면을 신청한 것입니다. 교계에서 ‘이단정죄’는 그 교회나 교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엄청난 불이익과 박해가 따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합의 음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구속당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로부터 배척당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단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아예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또 성도들 중에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청년들은 파혼을 당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거부되는 등 다 열거할 수 없는 박해를 지금 이 순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들이 정상일까요? 정말 교단과 목사들이 이 정도로 악하고 파렴치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판사 앞에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아도 저는 승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판사들 역시 기득권 편이었고 면죄부를 주어 통합과 이단사냥꾼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방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며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진실에 눈을 뜨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4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

(“예장 통합 교단 사면백서”에서 발췌한 내용!)

장자교단, 길을 잃다

예장(통합)의 사면 파동



“그들은 과연 구원이 없는 이단인가?”

이정환 목사 정리

뉴아인



제가 앞에서 소개한 기자회견의 전문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후에 통합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님이 『장자교단, 길을 잃다 예장(통합)의 사면파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양심선언으로,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한 내용들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서언 - 통합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

1.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송송 뚫리는 광우병에 걸려죽는다”. 근거도 없는 한마디 언론 보도에 한국 사회는 소위 광우병 파동이라는 광풍에 휩싸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당시 이 사태를 지켜본 한 학자는 “광우병 사태는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전문적 식견이 없는 다양한 사람들의 소견, 왜곡과 조작된 내용, 정부의 무능함, 공상적 추론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보 정치권 세력과 이에 편승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등 다양한 성질의 정보가 혼합되어 만들어낸 사회적 혼돈 그 자체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유아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2016년 9월 21일은 한국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한때 이단으로 정죄하였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면을 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사면을 철회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 자처하는 통합 총회가 저질렀기 때문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가 10일 만에 철회하고 다시 붙잡아들인 것과 같은 일이다. 석방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개사과까지 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착각했다’고 소리치며 석방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석방된 자들은 사면 후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종단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 수십 년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살아온 필자에게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쓴 글이 ‘시일야망성대곡’이다. 필자는 이날을 한국기독교 역사에 영적 광우병 사태가 발생한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 허락이 없이는 이단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최삼경 목사가 제98회기-99회기 총회이단대책위원장에게 경고하듯 한 말”이라고 위원장 임준식 목사가 제100회 총회 이대위 보고 시간에 폭로한 내용이다.

제100회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하자 최삼경 목사는 2016년 9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에 “이단 해제에 한국교회가 울고 있다”는 제하의 사면반대성명을 게재하고 발 빠르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101회 총대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발을 맞추어 2016년 9월 19일 통합 증경총회장들은 채영남 총회장에게 사면을 취소하고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튿날인 9월 20일, 총회 이대위 전문위원을 지낸 허 모 교수는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 교수들을 선동하여 “이단 특별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최삼경 목사의 총신대 동기인 총신대 박 모 교수가 타 신학교 교수들을 선동하여 통합총회의 이단사면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최삼경 목사의 성명서 발표가 마치 신평탄이 되듯 일사불란하게 과거 한기총 이단 심사 때처럼 교수들과 이번에는 증경총회장들까지 나서서 사면반대 여론을 주도하여 결국 사면을 철회하게 만든 것을 보면 최삼경 목사는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해보였다. 참으로 대단한 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일을 묵과하시지 않으리라 믿는다. …

예장 통합의 이단관련자 특별사면과 사면번복에 대하여 언론은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단관련자 사면이 우연히 우발적인 사

건이라는 것이다. 해프닝은 주체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특별히 문제 삼을 것도 없다. 그런데 누군가 상대가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프닝의 주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상대방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예장 통합의 특별사면 파동은 해프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종교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그것이 정당한 일인지, 특별히 용서와 화해를 외치는 기독교 종단으로서 신앙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받아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정신에 반하는 기독교 윤리의식이 실종된, 힘의 논리에 의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2. 제100회 총회가 결의하여 실시하고자 했던 특별사면의 목적과 취지는 회년의 정신과 이른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교단 내외에서 우리 교단에 의해 책벌이나 혹은 정죄를 받은 이들에게 회개와 개선의 기회를 주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복귀하게 하는 한편 교단 내 교회들의 화해와 한국교회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특별사면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단관련자 사면 문제를 심의하였다. 사면신청자 중 일부는 이단, 사이비로 정죄된 지 10여 년 미만인 이들도 있으나 다수는 20여 년이 훨씬 지났

으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면심사 절차를 통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문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개선과 시정이 가능함을 보았으며 그러므로 이 같은 의지를 보인 이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여론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한 총회장은 사면관련 해명서를 언론에 배포하여 특별사면의 당위성을 밝혔다. …

4. 총회장의 해명서가 발표된 다음 날, 서울 모 호텔에서 회집된
증경총회장 모임에서 증경총회장들은 채영남 총회장에게 고성과 폭언으로 사면철회를 요구했고 채영남 총회장은 증경총회장들의 압력에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고 실토하고 “그 상황에서 사면취소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증경총회장들에게는 ‘왜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 사면에 대한 이유나 당위성 등’은 아무 관심이 없었다. 오직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다.

총회 임원회는 여러 압력에 굴복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한 지 불과 12일 만인 9월 21일, 사면에 대한 확정과 사면선포까지 철회하였으며 제101회 총회는 사면에 관한 임원회 보고 자체를 폐기하도록 결정하였다. 한마디로 역사를 지워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보다. 그러나 역사는 일방적인 기록이 아니다. 역사는 주류에 반하는 비주류의 기록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때로는 비주류의 기록이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사참배 결의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해서 남겨두는 것이다.

나는 이 기록이 우리 교단의 역사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제100회기 특별사면이 한국기독교 역사에 ‘용서와 화해’라는 역사적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기를 바랐다. 그러나 교단 내 인사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의나 관심조차 없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단을 해제했다”는 말로 사면임무를 맡은 사람들 모두를 매도하고 심판하고 비난했다.

나는 공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정이 반드시 옳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 결정도 그렇고, 제38회 총회가 고 김재준 박사를 제명한 것도 그렇다. 제101회 총회는 “제38회 김재준 박사를 성경 유오설과 신신학을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제명한 결의를 철회함으로써 63년이 지난 후에야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았다. ...

같은 맥락에서 이단관련자에 대한 사면문제도 우리 교단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는다. 비판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이단을 옹호한다”고 비판하고 옹아매려 든다. 그러나 이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

는 것이다. 교리적 논쟁이 시작된 초기 기독교에서 하루아침에 이단과 정통이 뒤바뀐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통합 총회도 삼신론과 성령론 이단문제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적당히 처리한 것이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일이 아닌가?

5. 분명한 것은 사면대상자들이나 신청자들 모두 “구원이 없는 이단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채영남 총회장은 비록 주변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하여 사면을 철회하였지만 사면대상자들이 이단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성경과 기독교를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근거한 형제들까지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하고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경과 복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 총회장의 담화문 중에서

비록 사면은 철회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진 것이다.⁵⁵

55 이정환 『장자교단 길을 잃다 예장(통합)의 사면파동』 서울: 뉴아인, 2016. pp. 12-22.

2. 추천사 - 통합 (전)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창영 목사

예장 통합의 제100회 총회 주제가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였다. 제100회 채영남 총회장은 이 주제에 따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화해, 곧 십자가를 중심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사안으로 **특별사면위**를 설치했다. 그의 깊은 기도와 영감의 결단으로 제100회기 동안의 권징을 비롯하여 이단으로 규정된 개인과 교회단체들을 특별사면키로 한 것이다. 이는 **예장통합 총회의** 역사는 물론이요,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추천인은 이단 특별사면에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두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살롬 총회장님, 특별사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말들과 몇몇 사람들의 움직임을 듣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극히 편협한 사람들의 선동입니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중심잡고 나가십시오. 총회장님의 편에 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롬, 총회장님의 마음이 엘리야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편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총회장님의 기도로 결단하시고 진행된 화해의 사면선포가 사단의 장난으로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선포를 취소하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총회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새벽에도 총회장님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사면선포 후 십여 일도 되지 않아 이단관련자들에게 대한 사면을 철회하였고, 제101회 총회 둘째 날에는 특별사면 원천무효와 3년간 재론금지를 결의하고 말했다. 채영남 총회장이 이단사면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증경총회장들의 압력과 선동당한 몇몇 노회와 신학대학 교수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이단사냥꾼들의 반대선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한 이단사냥꾼은 모 인터넷 신문의 기자증을 발급받아 목에 걸고 총회현장에 나타나 기자석에 앉아 반대 발언을 할 총대들에게 문자로 일일이 지시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단사면 철회 후의 반응이다. 이단사면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기독교언론지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총회를 비판하기를 예상통합 총회는 휘뚜루마뚜루 총회, 복음이 없는 총회,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없는 총회, 대 국민 이단사면 사기극 총회, 신성 모독 총회, 갑질 총회, 증경총회장들의 광기 어린 총회, 막장 드라마 총회, 해프닝 총회, 무식무지한 총회, 무게 없는 경거망동 총회, 부관참시 총회, 권위가 실추된 총회, 마귀 총회, 산헤드린 총회, 빌라도 총회, 살해(살인) 총회, 이단사냥꾼에 휘둘린 총회, 자기는 로맨스 남은 불륜 총회, 부끄럽고 치욕적인 총회,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총회,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우롱한 총회, 이단옹호 총회

등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용어들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이렇게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들로부터 악평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면을 반대한 몇몇 노회와 신학 교수들의 성명서 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사면위원회의 구성과 의의, 심사과정, 연구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교단 내 이단사냥꾼들과 한두 사람의 조종에 의해 엉뚱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제100회기 특별사면위원회의 사면심사과정에서부터 사면선포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출간되게 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이 기록을 역사에 남겨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특별사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게 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서 통합 총회 제101회 총대들을 비롯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몇몇 노회와 교수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똑바로 보고 회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101회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장통합 총회가 얼마나 부정하고 세속적이었기에 이런 주제를 정하였을까? 하고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거룩한 교회’는 지난 역사를 회개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회개는 예장 통합이 100년의 역사에서 저질렀던 불신앙과 금권타락선거와 각종 선거의 부정, 교권주의

에 함몰된 불신앙을 회개하고 특히 이번에 이단사면을 철회함으로써 사면대상들에게 안겨준 상처에 대한 치유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 회개가 제102회 총회에서는 101회 총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요,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장자교단이라 자처하던, 그러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길을 잃어버린 예정통합 총회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면에서 갖은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한 저자와 협력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⁵⁶

3. 이 책에 나오는 통합 총회의 주장과 당사자 소명

특별사면위원회는 변승우 목사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 총회결의, 사면신청이유, 타 교단에서의 변승우 목사에 대한 결의 등을 참고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변승우 목사는 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서면질의에 대한 변승우 목사가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면담을 통한 소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6 이정환 『장자교단 길을 잃다 예정(통합)의 사면파동』 서울: 뉴아인, 2016. pp. 4-7.

주제	총회 소명	이단결의 내용과 당사자 소명
구 원 론	통합총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도 회개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있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은 회개를 통한 열매로 나타나야 하며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외부로 나타난 것이 행위이다. 천주교식의 행위구원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통합총회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성결교 신학을 한 사람으로 칼빈의 성도의 견인교리보다 아르미니안주의 구원관을 믿는다. 이것은 이단사설이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교(혹은 성결교)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일 뿐이다.
	통합총회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전인 구원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우리의 구원은 전인구원임을 믿으며 영혼육의 구원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 곧 구원의 순서’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믿는다.
성 경 관	통합총회	성령의 직접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계시가 없이는 설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직접계시’니 ‘직통계시’니 하는 말은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며 자신은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성경계시의 완성을 믿는다. 자신이 계시라는 용어를 쓴 것은 성령의 조명(계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계 시 관	통합총회	직접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을 중시한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신사도운동을 건전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며 계시라는 말을 쓴 것은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의미의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영적체험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없으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신 비 주 의 사 역	통합총회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교회 내에 예언 사역팀, 방언통변팀, 신유축사팀 등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목회 신비주의 행태의 사역을 하고 있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신은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예언도 하지 못하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은사학교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은사종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주의 사역으로 몰아가는데 이런 비판이 오히려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은사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성령님이 은사 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교 회 관	통합총회	오늘날에도 주님이 사도를 세우시며 자신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한국교회가 사도적 교회임을 인정하며 개인적 견해이지만 성경이 폐하여지지 않는 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역은 지속된다고 믿는다. 열두 사도와 같은 사도는 없지만 그러나 비록 새로운 직분의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믿으며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교 회 관	통합총회	자신과 자기 교회만이 참된 주의 종이요 참된 교회라는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성 교회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공격한다.
	변승우 목사의 소명	주님의 교회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교회 지도자들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비판한 것이며 그러나 지나친 비난은 결국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는 충고와 권면을 옳게 생각하여 지금은 절제하고 있다.

변승우 목사는 아르메니안주의자이며 은사주의 목회자로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한 교단들은 모두 아르메니안주의에 반대하는 장로 교단들이다. 장로교 교리로 비장로교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특히 에큐메니칼 정신을 주장하는 통합 교단의 정체성에 위배되며 통합 총회에서 은사종결론을 주장하는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최삼경 목사 등이 은사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사례이기도 하다.⁵⁷

4. 이 책에 나오는 변승우 목사에 대한 교수들의 연구 보고

1) A교수의 연구보고

57 이정환 『장자교단, 길을 잃다 예장(통합)의 사면파동』 서울: 뉴아인, 2016. pp. 144-147.

1. 변승우 목사는 구원론에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회개의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므로 행위구원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변승우 목사는 자신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원관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의 교파도 동일하다. 장로교의 견인교리에는 분명 부적합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파 간 다양한 구원관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 사료된다.

2. 계시론에서 변승우 목사는 성령의 직접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를 직통계시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또 은사(기적)계속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보다 경험을 중시한다고 매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변승우 목사는 성경계시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것(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3. 변승우 목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말씀의 증언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은사주의 목회를 이단시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이 주장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은사목회를 한다고 해서 변승우 목사를 신비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 사료된다.

4. 변승우 목사의 경우는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인간관계의 미숙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아마도 변승우 목사는 그동안의 이단시비 때문에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변승우 목사가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지나치게 비난한 것도 인간관계의 미숙과 자기 정당화의 젊은 패기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목사들의 충고로 절제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5. 결론적으로 변승우 목사에게서 이단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나치게 행위(열매)를 강조하는 설교와 은사목회에 치중해온 그의 목회형태, 그리고 기성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비판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적절한 사과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별사면위원회가 큰믿음교회 1만 5천 교인들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면할 수 있다면 변승우 목사 자신뿐 아니라 큰믿음교회와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 되리라 사료된다.

2016. 5. 28.

2) B교수의 연구보고

1. 변승우 목사는 구원론에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 회개의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견해를 주장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은 서구 기독교에서도 “Once saved, always saved”란 문제의 찬반양론으로 양쪽이 모두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논쟁을 하고 있다. “영원한 안전(Eternal Security)” 혹은 믿는 자의 “조건적 안전(Conditional Security)”이란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는 ①고전적 칼빈주의, ②온건한 칼빈주의, ③개혁적 아르미니안주의, ④웨슬리안 아르미니안주의 등 4가지 설이 있다. 이것은 칼빈의 TULIP라는 5개항 중에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는 장로교와는 다르게 자신들을 “웨슬리안 아르미니안(Wesleyan Arminian)”이라고 주장한다. 변승우 목사도 자신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안”이라고 진솔하게 말하고 있다. 이 문제로 변승우 목사를 이단시한다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전부를 이단시해야 한다. 하나의 학설을 가지고 장로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계시론에서 변승우 목사는 성령의 직접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신사도운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며, 은사(기적)계속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보다 경험을 중시한다고 매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변승우 목사는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것(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4. 변승우 목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말씀의 증언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마가복음 16:20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에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은사를 인정하고 중요시한다고 해서 변승우 목사를 신비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 사료된다.

5. 변승우 목사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사도적 교회임을 인정하고, 목회자의 사도성, 즉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 사도와 같은 역할은 인정하지만,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다.

6. 변승우 목사의 경우는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인간관계의 미숙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아마도 변승우 목사는 그동안의 이단시비 때문에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변승우 목사가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지나치게 비난한 것도 인간관계의 미숙과 자기 정당화의 젊은 패기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목사들의 충고로 절제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7. 결론적으로 본 연구 교수는 변승우 목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숙독한 결과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변승우 목사는 젊은 목회자로서 많은 저서를 탐독하고, 많은 저서를 출판했으며, 일만여 명 성도들을 가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에, 예장 통합 특별사면위원회에서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의 굴레를 벗겨줌으

로써, 변승우 목사는 개인적으로 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장차 한국 기독교계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선한 일이라 사료된다.

2016. 5. 29.⁵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통합이 직접 전문교수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 A교수님은 “변승우 목사에게서 이단성을 찾는 어려워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고, B교수님은 “변승우 목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숙독한 결과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음해를 당해왔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끝으로, 어제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기총 회장이시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2017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 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향방과 대선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58 이정환 『장자교단 길을 잃다 예장(통합)의 사면파동』 서울: 뉴아인, 2016. pp. 147-151.

이 목사는 조만간 한기총 임시총회를 통해 2011년의 7.7정관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

한기총이 7.7정관으로 돌아가고자 함은 연합기관 통합을 원활하게 이루고자 함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과 일부 대형 교단들은 과거 다락방을 영입한 개혁신회의 회원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목사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한기총을 탈퇴했으나 개혁신측은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운을 떼 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 측에서 큰믿음교회,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등을 풀자고 할 때 문제는, 개인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자녀들이나 후임들이 현재 문제가 없는데 그것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문제를 삼아야 하느냐”면서 “개인이 탈퇴하고 뒤로 물러갔는데 확대해서 그 교단까지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크리스찬연합신문 2017. 2. 3. 기사

그런데 이 신문과 교회연합신문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언론들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약속이라도 한 듯 생략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언론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영훈 목사님 위치에서 이 정도로 발언한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합 특별사면위 때 **평강제일교회**는 이대위와 사면위 둘 다 통과되지 못한 상

태에서 임원회가 무리하게 넣었고, 성락교회는 이대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사면위가 넣었으나, 우리 사랑하는교회(舊 큰믿음교회)는 이대위와 사면위 그리고 임원회를 모두 정식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두 교회와 달리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온전히 입증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이단으로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통합 교단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소문이 아니라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소문에 속아 이단이라고 말한 것 이상으로 이 팩트를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교회(舊 큰민음교회)

이단시비 종결되다!

발행일 2017년 3월 21일 초판 1쇄
편 저 변승우
발행인 변승우
발행처 도서출판 거룩한진주
주 소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27-22 (우) 05655
전 화 02-586-3079
팩 스 02-523-3079
Website <http://www.belovedc.com>
[http://cafe.daum.net/Bigchurch\(B 대문자\)](http://cafe.daum.net/Bigchurch(B대문자))

ISBN 979-11-85914-34-3 03230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 복제, 전재, 발췌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4149)